



[해설] 여의도 새 바람 물고울 3인의 새 장수 03



Economy

코스피	2475.03 (-18.94)	코스닥	880.97 (-13.46)
금리 (국고채 3년)	2.28 (변동없음)	환율 (원·달러)	1071.60 (+5.40) (19일)

생산직노조의 어깃장 금타 '핑크' 일보직전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9일 금호타이어 노조와 직접 만났지만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해외매각이나 법정관리나를 결정지를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 온 가운데 노조원 사이(노노)의 갈등이 증폭됐다. 생산직 노조가 여전히 해외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일반직은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아 노조 집행부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은 당초 예정보다 길게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지만 입장차이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선 중국 더블스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채권단 입장을 전하고 동의를 요청했다.

반면 노조 측은 여전히 해외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 두번째)이 19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아 금호타이어노동조합 집행부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노조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경영악화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는 노조와 채권단이 공감했지만 해외매각에 대해 현저하게 입장차가 있었다"며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전제로 한 일정에 노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음 대화 전에도 매각에 찬성하면서 조건을 강화하는 거라면 의미가

없다"며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대화하자는 전제라면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앞서 지난 16일 100% 동의로 더블스타로 부터의 투자유치 조건을 승인했다. 노사가 자구합의서만 제출하면 더블스타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더블스타는 투자금 총 6463억 원을 납입하면 지분을 45%의 최

산업銀 회장이 설득해도 일반직 노조가 찬성해도 해외 매각 "무조건 안돼"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고용보장은 3년이며, 매각 역시 3년 간 제한된다. 3년이 지난 이후에도 더블스타는 5년 또는 채권단이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더블스타 역시 적극적으로 나 오고 있는 상황이다. 차이용선(柴永森) 중국 더블스타 회장(총경리)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인수 후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면 금호타이어를 다른 곳에 넘길 이유가 없다"며 "이번 인수는 금호타이어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떡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블스타 관계자가 나서서 금호타이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노조의 동의 뿐이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18 100세 플러스 포럼' 100세 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

메트로경제가 오는 3월 28일 '2018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와 저성장 지속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터널이 길어지면서 경기 회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메트로경제가 '100세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를 모색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를 주제로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 전략(세션1), 100세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에 대해 토론(세션2)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식 투자전략과 정부 규제 속 부동산 투자, 기업공개(IPO) 전 엔젤투자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치투자'로 유명한 이재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사장, 프리 IPO 투자 전문가 장은현 스타셋인베스트먼트 대표, 똑부러진 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유명한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 등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이날 '100세 플러스 포럼'을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재테크 전략을 접하시길 기대합니다.

- 행사명 : 2018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 주제 : 100세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
- 일시 : 3월 28일(수) 08:30~13:00(VIP 티타임 08:30~08:55)
- 장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그랜드홀
- 문의·참가 신청 : 전화 (02)721-9826, e-메일 :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오찬 제공)
- 주최 : 메트로경제



'골프 여제'의 귀환
18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미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우승자인 골프여제 박인비(30)가 트로피를 들고 있다.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기록,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3월 HSBC 챔피언스 이후 1년 만에 LPGA 투어 대회를 제패한 박인비는 투어 통산 19승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L6> /연합뉴스

CB사·카드사에도 빅데이터 업무 허용

금융위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방안 3대 추진전략·10대 과제 발표

앞으로 신용평가(CB)사와 카드사도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익명정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생기고,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는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규제를 도입·유지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

〈'금융분야 데이터활용·정보보호 종합방안' 추진 과제〉

3대 추진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
1.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①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②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
	③ CB사·카드회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
	④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2.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⑤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
	⑥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
	⑦ 신용정보산업의 책임성 확보
3. 정보보호 내실화	⑧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⑨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⑩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금융위원회

용이력부족자(씬파일러·Thin filer)를 제도권 금융에 포함할 기회를 잃고,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데이터 활용이 크게 제약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위한 법적근

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개별주체의 사전동의를 기초로 하고, 정보보유 기간도 최장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사실상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은 어렵다.

앞으로는 '익명정보' 및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해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한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확화해 자유로운 분석·이용을 보장하고, 가명처리정보는 암호키 등 추가정보의 분리보관을 전제로 과학연구·통계작성·공익목적의 기록보존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한 비식별 기술 발전도 수용한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비식별기술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표준화 논의를 수용하고, 원칙 중심의 법제도를 마련한다.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2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

공공분야 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文 '정부혁신 전략회의' 女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공공기관 주차장 국민에 개방

김품수수, 부정청탁, 채용비리 등을 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된다. 이른바 '유리천장'을 제거해 공공부문에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40%를 여성으로 채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주차장, 회의실, 강당 등을 개방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 환경, 안전 등 공공데이터도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분야 채용비리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부정합격자는 바로 퇴출시키고 가담자는 수사의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내에 채용비리신고센터도 상시운영한다. 부정청탁을 받고 업무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 과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기로 했다. 국민안전과 방위산업 관련 분야는 자부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하인 영세업체라도 퇴직공직자 취업을 제한한다.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해 여성들의 승진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고객데이터 진입장벽 낮춰 핀테크·창업 등에 활용”

» 1면 'CB사·카드사에도 빅데이터 업무 허용'서 계속

빅데이터서비스, 부수업무로 명확화

또 CB사·카드사가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허용한다. 현행 CB사는 2015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업무를 할 수 없다. 앞으로 CB사의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해 평가모델 고도화 최대화= 등 개인신용평가 업무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카드사도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보유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VISA 카드는 고객의 동의하에 타겟 고객의 결제 위치·시점·구입품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인근가맹점의 할인쿠폰을 발송하는 프로모션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DB화해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시장 조성도 지원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신용정보·보험관련 정보를 활용해 표본DB 및 맞춤형 DB를 마련·제공한다. 표본 DB를 제공해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상품개발·시장분석·연구 등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채신화 기자

작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1800만명 육박 '사상 최대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지난해 18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여명의 연장으로 길어진 노후를 국민연금으로 대비하는 수요가 꾸준히 급증한 영향이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서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소득신고자는 지난해 기준 1799만8055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신고자는 지난 2011년 1499만명에서 2012년 1566만명, 2013년 1617만명, 2014년 1655만명, 2015년 1706만명, 2016년 1766만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사업장(직장) 가입자는 1345만9240명, 지역가입자는 386만5800명, 임의가입자는 32만7723명, 임의계속가입자는 34만5292명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자는 해마다 계속 줄고 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한줄뉴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키로 했다.
- ▲ 여당은 19일 중앙당 공천 관련 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며 공천 작업에 시동을 걸었으며, 야당은 분위기 반전을 위한 인재영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 ▲ 오는 21일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서거 17주기가 되는 가운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정 명예회장의 '도전' 정신이 최근 혼돈에 빠진 한국 기업들에 또 다시 강조되고 있다.
-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들고 나온 데이터 요금제 개편안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끌어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 미국발 금리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기 후퇴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기업 10곳 중 4곳이 상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 ▲ 신한은행이 국내은행 최초로 '자산부채종합관리(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 ▲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주요 20개국(G20) 대표지수 중 7위를 기록했다.

당국,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비금융정보 특화 CB(신용평가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기업 CB사는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벽을 낮춘 대신 정보보호는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는 '등급제'를 도입하고 데이터 처리에 따라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보장한다.

◆ CB사 진입 문턱 낮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종합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규제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 CB업의 경우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분야별 특정 정보만 활용하는 특화 CB사를 도입해 CB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고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화 CB사는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금융기관 출자요건(50% 이상)을 제외한다. 다만 영업행위 규제는 일반 개인 CB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업 CB업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 CB업을 개인 CB업과 분리하고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자본금 규제, 금융권 출자의무 등을 완화한다. 정보조회, 신용조사, 신용등급 제공 업무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유류자본 보유를 강제하는 자본금 규제는 현행 50억원에서 개선인가단위별 5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출자의무는 배

제한다. 또 본인인증업무, 평가모형 개발 및 판매 업무 등 기타 데이터 처리 업무는 신규 업체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 CB업의 고유업무에서 제외한다.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도입한다. 이 업종은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 본인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를 비롯해 로보어드바이저 업무, 대출상품 등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핀테크업체 등에게 별도의 제휴·계약관계 없이도 금융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허용된다. 자본금요건은 1억원으로 최소화하고 정보유출 등에 대비한배상 책임 보험 가입은 의무화한다.

◆ 정보보호는 주체적으로 진입 장벽을 낮춘 만큼 정보보호

는 내실화한다. 개인정보보호는 '등급제'를 도입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활용 동의 여부 판단 시 보조지표로 제공한다. 금융보안원 등 제3의 기관에서 정보의 민감도,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한 평가 등급을 산정·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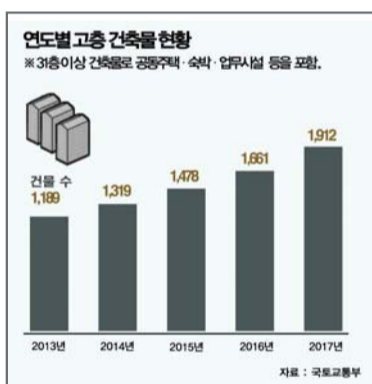
또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의 경우 선택권 확대 효과보다는 동의 절차만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택적 동의사항에만 도입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강화된다.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해 데이터 처리에 따른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한다.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나 그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한다.

또 금융권의 전반적인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시평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전체 금융회사 3429개를 대상으로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8개 항목, 72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해 점검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해운대·송도·청량리, 초고층 랜드마크 줄줄이 대기

내달부터 초고층 물량 공급 주거환경·입지 뛰어나 인기



50층 안팎의 초고층 아파트 분양에 수요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국에서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은 부산 해운대를 비롯해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재개발에 들어가는 서울 청량리 등에서 랜드마크 단지가 다음달부터 분양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 31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1912개 동으로 2016년 대비 251개 동이 늘었다. 전체 건축물 중 31층 이상 초고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0.017%에서 2017년 0.026%로 증가했

다. 고층 건축물은 대부분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이다.

고층아파트는 주거환경과 입지가 뛰어나 청약시장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5월 경상남도 양산에서 분양한 금호건설 '양산 금호리첸시아(44층)'는 평균 20.36대 1,

최고 40.32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쏟아지는 초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관심이 쏠린다.

대우건설은 오는 4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49층 초고층 단지인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49층, 3개 동 총 54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단일 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걸어서 3분거리다.

롯데건설은 오는 4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에서 지역내 최고층으로 짓는 '청량리 롯데캐슬'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65층, 5개 동 총 1900가구 규모

다. 아파트 1372가구, 오피스텔 528실로 이뤄진다. 1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청량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금성백주주택은 오는 4월 동탄2신도시 C7블록에서 47층 초고층 단지인 '동탄역 금성백주 에미지3차'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4개 동, 전용면적 84~101㎡ 아파트 498가구와 전용면적 22㎡ 오피스텔 420실 등 총 918가구 규모다.

대방건설은 오는 5월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서 48층 초고층 단지인 '인천송도1차대방디엠티티'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48층, 6개 동 총 1236가구 규모로 이어진다. 이중 아파트 580가구와 오피스텔 656실로 이뤄진다. /이규성 기자 peace@

R&D 지원금 4억~5억 당 청년 1명 채용 의무화

과기정통부 등 11개 부처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R&D) 주요 11개 정부 부처가 R&D 재원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R&D 참여 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부담금 및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

른 기술료 납부 시,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 만큼을 기술료에서 감면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해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는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기업이 매칭 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R&D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5억 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

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되,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이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각 부처의 규정(고시 등) 개정만을 통해 현행 R&D 재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의 부처가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만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여의도 새 바람 몰고올 3인의 새 장수

NH투자증권 정영채

“국내는 좁다”
IB 대군

삼성증권 구성훈

“영토 넓히기”
정통 삼성맨

키움증권 이현

“기마병 처럼”
다크호스

원(Parc1) 금융주선을 떠나면서 IB부문 최대 실적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IB사업부에서만 110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체 당기순이익(3501억원)의 31.5%가 IB에서 나온 것이다.

이같은 성과는 NH금융지주가 이례적으로 젊은 대표를 내정한 배경으로 꼽힌다. NH투자증권 임원추천위원회는 정대표의 내정 이유에 대해 “NH투자증권을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리드할 글로벌 IB로 키워낼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대표는 초대형 IB사업을 역점해 둔 경영전략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내정자는 삼성자산운용 대표를 맡으면서 괄목할 만한 자산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독보적인 상장지수펀드(ETF) 사업자(점유율 53%)로 오른데도 구 대표의 역할이 컸다.

구 대표는 1987년 제일제당을 통해 삼성그룹에 입사한 전통 ‘삼성맨’이다. 이후 1992년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에서 일했고, 1998년 삼성생명 투자사업부 자리로 옮기며 자산운용업무에 발을 디뎠다. 이후 2015년부터 삼성자산운용 대표로 있으면서 123조7000억원(2014년 말 기준)에 불과했던 운용자산을 지난해 말 기준 220조원으로 끌어 올렸다.

운용시장에 대한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삼성자산운용은 국내에 처음으로 타깃 데이트 펀드(TDF·target date fund)를 선보이면서 퇴직연금 펀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다. TDF는 투자자가 은퇴 시점을 정해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상품으로 ‘안정적·장기적 성과’를 중요시 여기는 구 대표의 투자 철학이 담겼다.

물론 자산운용업과 증권업의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증권사 대표로서의 성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자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는 구 대표의 경영전략은 주춤하고 있는 삼성증권 IB업무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 키움증권 대표 내정자는 10년 간 이어온 권용원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더욱이 브로커리지(주식 중개)에 편중된 키움증권의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대표는 2000년 1월 키움닷컴증권사를 시작으로 키움저축은행 대표,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 등 다우키움그룹 계열사의 대표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이 대표가 키움증권 대표로 내정

신임 증권사 CEO 프로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내정자



구성훈
신임 삼성증권 대표이사



이현
키움증권 대표 내정자

학력	1964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61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1957년생, 서강대 철학과 졸업
주요경력	1988년 대우증권 입사 2005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IB사업부 대표	1987년 제일제당 공채 입사 1992년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 2012년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장 2015년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2018년 2월 삼성증권 대표이사 내정	1985년 조흥은행 입사 2000년 키움닷컴증권 이사 2002년 키움닷컴증권 상무 2007년 키움증권 전무 2009년 키움증권 부사장 2013년 키움저축은행 대표이사 2015년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자료/ 각사

된 데는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로 지내면서 거둔 성과가 바탕이 됐다. 이대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도시의 대체투자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키움투자자산운용의 펀드 설정액을 늘렸다. 이에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

인 순이익 162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달 키움증권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결정을 통해 자기자본을 1조7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향후 키움증권이 자기자본투자(PI) 및 신사업 확대 등 사업 포트

폴리오를 확장시킬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키움증권은 전사 조직개편을 통해 헤지펀드 운용팀을 신설하고, IB부문을 세분화하며 IB사업 강화 체비를 마쳤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올해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되는 증권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임 대표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것.

주요 증권사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 호조와 증시 활황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투자은행(IB)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새 먹거리 확보가 치열해지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의 신임 대표가 이달 정기주총에서 공식 확정된다. 이번 신임 대표의 공통점은 IB 부문에서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점이다.

먼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내정자는 국내 IB업계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도 IB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세대 인물로 꼽히고 있다.

정 대표의 1988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2005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으로 자리를 옮긴 후 13년 연속 IB사업부 대표를 맡았다. IB관련 분야에만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다.

실제 업계 최고로 꼽히는 NH투자증권의 IB사업의 성장은 정 대표가 일궈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2005년 취임 당시 업계 7~8위권이었던 NH투자증권의 IB 부문을 업계 1위로 끌어 올렸다.

특히 지난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힌 넷마블게임즈 상장 주관, 서울 여의도에 들어설 초대형 오피스 빌딩인 파크

일반직 직원 72% “더블스타에 매각 지지”

» 1면 ‘금타 펀크 일보직전’서 계속

산업은행 관계자는 “더블스타 투자유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노조 동의절차만 남았다”며 “이달 말까지 투자유치에 대한 노조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협약 절차를 즉시 중단기로 결의한 만큼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조의 현명한 선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결정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채권단의 압박이 아니더라도 추가 유동성 지원 없이는 이달을 넘기기는 힘든 상황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금호타이

어 일반직 직원들은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가입돼 있는 금호타이어의 생산직을 제외한 일반직 인원은 약 1500명이다. 이들은 지난 주 일반직 대표단을 결성하고 해외자본 유지에 대한 찬반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률 71.5%에 찬성률 97.3%로 집계됐다.

금호타이어 일반직 사원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 본사 앞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고용보장 약속과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를 요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5057호(2017.11.7)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17-11-02

작은 병은 크게 변 큰 병은 크게 변 큰 이리

되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경증과 중증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한화생명 내가 찾던 건강종신보험 무배당

[보증비용 부과형]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통금)이나 사고보통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1588-6363
www.hanwhalife.com

한화생명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갤럭시 팬 큐레이터' 발대식이 열렸다.

/삼성전자

아이돌 못지않은 갤럭시S9 인기

팬과 함께하는 체험 마케팅

삼성전자, 새로운 팬 문화 만들어 밀레니얼 세대부터 시니어까지 여러 소비자가 갤럭시 매력 전달

삼성전자가 '갤럭시 S9'와 '갤럭시S9+(플러스)' 출시와 함께 소비자 봉사단 '갤럭시 팬(Fan) 큐레이터'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체험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갤럭시 팬 큐레이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 안내를 통해 갤럭시의 매력을 전달하고 함께 소통하는 역할을 하며, 갤럭시 S부터 노트8까지 모든 갤럭시 제품을 사용한 열혈 팬부터 인기 유튜

버, 얼리어답터까지 다양한 직업과 개성을 가진 소비자들로 구성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진행된 '갤럭시 팬 큐레이터' 모집에서 약 일주일 동안 총 1700여명이 신청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시니어의 신청 비율이 20%에 달하는 등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들이 참여했다.

최종 선정된 100명의 '갤럭시 팬 큐레이터'는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발대식을 갖고, 전국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소비자들과 교감하며 '갤럭시 S9·S9+'의 매력과 활용성을 전하고 있다.

타임스퀘어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활동

중인 갤럭시 팬 큐레이터 하지민(27) 씨는 "소비자들에게 '갤럭시 S9·S9+'의 다양한 활용성을 소개하는 활동이 보람 있고 뿌듯하다"며 "소비자 리더로서 갤럭시와 소비자들을 이어주는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갤럭시 팬 큐레이터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팬 큐레이터'와 같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관심으로 갤럭시가 많은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과 교감하는 새로운 체험 마케팅으로 소비자들과 친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의류관리기 'LG스타일러' 천식·알레르기 도움 인증

미국 AAFA로부터 인정

LG전자의 의류관리기 'LG스타일러'가 미국에서 건강 관리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19일 LG전자에 따르면 LG스타일러는 최근 미국 천식알레르기협회(AAFA)로부터 '천식·알레르기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인증 받았다.

AAFA측은 "LG스타일러가 의류에 묻은 집먼지 진드기는 물론 박테리아 및 곰팡이를 99% 이상 제거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 해당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의류관리기전 분야에서 이 협회의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8년에는 드럼세탁기의 '스팀 알레르기케어' 기능으로 세탁기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동일 인증을 받았다.

LG스타일러는 사용자가 의류를 세탁하지 않아도 매일 위생적으로 옷을 관리할 수 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물을 이용해 만든 '트루스팀'으로 의류에 묻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세균, 집먼지 진드기, 미세먼지 등을 없애준다.

LG스타일러는 의류관리기라는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만들어낸 신개념 융복합 가전제품이다. LG전자는 스타일러를 개발하기 위해 ▲세탁기의 스팀 ▲냉장고의 온도 관리 ▲에어



미국에서 '천식·알레르기에 도움되는 제품' 인증을 받은 LG스타일러. /LG전자

컨의 기류 제어 등 주요 가전의 핵심 기술들을 한 데 모았다.

옷을 흔들어 주는 무빙행어의 경우 1분에 최대 200번 움직이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물 입자의 1600분의 1만큼 미세한 트루스팀이 분사되고 건조되는 과정에서 옷에 묻은 냄새, 미세먼지, 세균 등이 제거되고 생활 구김이 줄어든다.

앞서 LG스타일러는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 물을 이용해 스팀으로 의류를 관리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영국 비영리기관 카본 트러스트 ▲독일 인증기관 TUV 라인란트 ▲프랑스 전기공업중앙시험소 등으로부터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대우전자 '클라세' 공기청정기 시장 첫 발

극초미세먼지·유해가스 제거 기능 타워형 디자인... 2가지 모델 선보

대우전자가 연간 200만대 규모의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에 진출한다.

대우전자는 '6단계 청정시스템'과 '전면청정센서'를 적용해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제거가 가능한 '클라세' 공기청정기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공기흡입구에 전문 계측 장비 수준의 '레이저 PM 0.5 센서'를 적용, 레이저 광원을 이용해 지름 0.5μm(마이크로미터)크기의 극초미세먼지 입자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해 실내 공기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했다. 6단계 청정시스템은 프리필터·헤파필



터·탈취필터 등으로 구성된다. 프리필터로 생활먼지와 반려동물의 털 등 입자가 큰 먼지를 우선 걸러낸 후, 헤파필터로 미세먼지 0.3μm 크기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탈취필터는 세집증후군 유발물질은 물론 암모니아·아세트알데히드 등과 같은 생활악취 물질까지 제거해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효율 'BLDC' 모터로 오염된 공기는 제품 전·후면으로 흡입한 후 상단의 토출구를 통해 360도 전방향으로 정화된 공기를 내보내는 '입체 청정'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든다.

또한 미세먼지와 냄새를 종합해 4가지 색상으로 공기 청정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실내 공기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자동모드 설정 시 오염도에 따라 공기청정 풍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필터의 상태를 자동으로 측정해 필터 교체시기를 알려줌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필터교체 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신제품은 타워형 디자인 2개 모델로 60㎡(18평)의 공기정화 용량을 갖추고 있다. 가격은 50만원대.

/정은미 기자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 아파트 IoT 시스템 구축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인공지능 IoT아파트 구축

'지원더뷰' 아파트·오피스텔에 적용 홈IoT서비스도 음성명령으로 이용

LG유플러스가 음성명령만으로 홈네트워크 및 사물인터넷(IoT) 연동 기기 제어와 함께 집안의 모든 IoT 기기를 자동 실행 해주는 인공지능 IoT아파트 구축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지원더뷰가 시공하는 '지원더뷰'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인공지능 아파트 IoT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AI)스피커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공지능 IoT아파트 구축 단지는 세대 내에 구축된 인공지능 IoT플랫폼에 음성인식 기반의 AI스피커를 연동해 ▲냉난방 및 조명·가스 제어, 무인택배, 에너지 사용량 확인, 주차관제 등 홈네트워크 시스템 ▲에어컨,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밥솥, 가습기 등 개별 구매하는 IoT가전 ▲플러그, 멀티탭, 블라인드, 공기질센서 등 LG유플러스 홈IoT서비스까지 음성명령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황, 시간, 사용자별 조건을 입력해 집안의 모든 IoT 기기를 자동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 나갈게"라고 말하면 집안의 모든 조명과 가스를 끄고 동시에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전환해준다.

LG유플러스는 내달 지원더뷰에서 분양 예정인 부산 초량역 지원더뷰시티 오피스텔 372세대를 시작으로 부산 서면 지원더뷰파크 주상복합 288세대, 지원더뷰 아파트 3000여 세대에 인공지능 아파트 IoT 시스템 구축과 함께 AI스피커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현재 국내 최대인 60여개 건설제휴업체와 사업협약을 맺고 있으며, 100만 가입가구를 확보했다.

/김민이 기자 silkini@

삼성중공업, 유상증자에 우리사주 초과청약

삼성중공업은 지난 12~15일 유상증자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된 물량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배정 물량을 넘어서는 6004만주의 청약신청 물량이 몰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모두 2억4000만주를 발행할 예정인 삼성중공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발행주식의 20%인 4800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했다.

이번 청약에서 신청대상인 1만797명의 98%인 1만563명이 신주를 신청했다. 신청 물량 6004만주는 배정 물량을 25% 가량 초과한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강조했다.

삼성중공업 우리사주조합은 변동사항 등을 최종 확인한 뒤 개인별 배정 주식수를 확정하고, 주식대금 납입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2일 삼성중공업에 우리사주 청약할 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의 배정주식의 초과청약은 임직원들의 실적 개선 의지와 사황회복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 것"이라며 "구주주 청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다음달 9일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달 12일 우리사주조합 청약, 12~13일 구주주 청약, 17~18일 실권주 일반 공모 등을 거쳐 오는 5월 4일 신주를 상장한다.

/양성운 기자 ysw@

‘무약정 혜택’ 카드 꺼낸 이통사… 꼼수냐 실효성이나

이통사 3사, 무약정·요금제 인하 등 손질 보편요금제 도입 막기 위한 ‘잔머리’ 지적 무약정 이용자 전체 가입자 중 10% 안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들고 나온 데이터 요금제 개편안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끌어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이어 KT가 최근 약정 제도를 손질하며 요금 경쟁에 뛰어 들었다.

지난 14일 KT가 내놓은 요금 개편안은 비교적 저렴한 3만원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3.3배 늘리는 것이 골자다. KT가 출시한 LTE 데이터 선택(무약정) 32.8 요금제는 기존 데이터 선택 요금제 대비 월 데이터 제공량이 3.3배 상향된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고, 무약정 38.3 요금제에서는 2.5배 상향된 2.5GB를 제공한다. 가장 낮은 요금제를 기준으로 타사에서는 300MB·700M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은 최소 5500원의 요금할인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매장. /뉴스1

앞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요금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의 요금제 개편안은 요금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약정 플랜’ 신청 시 추후 36

월간 납부하는 월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월 최저 3000점에서 최고 9000점까지 적립 받을 수 있다. 월정액 6만원 이상 내는 고객은 36개월간 총 32만 4000점을 적립 받는 식이다. LG유플러스는 속도 제한을 없앤 8만8000원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러한 SK텔레콤과 KT의 요금제 개편안은 2년·3년씩 약정을 맺지 않는 무약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사 중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월 3만2890원에 매월 700MB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일반’ 요금제를 선보였다.

문제는 무약정 이용자는 전체 가입자의 10% 수준에 머물러 실제적인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지가 미지수라는 것이다. 무약정 요금제를 선택하면 공시지원금과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실제 무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일반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은 1~2%에 불과하다. 때문에 실제로 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는 이용자는 소수라는 지적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약정을 맺기 싫어하는 등 특수성 때문에 무약정 요금제를 선호하는 고객층이 있다”며 “향후 완전자급제가 정착되면 무약정 요금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정제도 개편이 대부분 고가요금제 위주인 것도 근본적인 통신비 경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LG유플러스가 내놓은 데이터 제공량 개편안은 고가 요금제가 위주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8만8000원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11만원 요금제 수준으로 늘렸고, 최근에는 이 요금제의 데이터 용량·속도 제한을 없앴다. 일각에서 수익성이 높은 고가 요금제에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지난 16일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들이 장려금 차등 및 삭감 정책을 통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왔다”며 저가 요금제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추혜선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개편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요금제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금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소니코리아가 19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풀프레임 카메라 ‘A7 III’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풀프레임 카메라 새로운 기준… 시장 선도”

소니코리아 ‘알파7마크3’

소니코리아가 풀프레임 카메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신제품 ‘알파7마크3(a7 III)’를 내달 10일 출시한다.

소니의 컨슈머 프로덕트 부문 사장 오쿠라 키쿠오는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소니 카메라 신제품 발표회에서 “오늘 선보이는 a7 III는 그간 소니가 선보인 혁신적인 기능을 고루 탑재해 풀프레임 카메라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며 “이를 통해 소니코리아는 근대 미러리스 카메라의 패러다임을 풀프레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니는 ‘연간 기준으로 수량과 금액 모두에서 풀프레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2018년 사업 목표로 밝혔다. 그 시작이 될 a7 III는 소니의 최고급 풀프레임 카메라 라인 ‘a9’과 ‘a7R III’에서 선보인 최고 사양의 디지털 이미징 기술을 고루 탑재했으며, 새롭게 개발한 35mm 2420만 화소 ‘이면조사 엑스모어 R CMOS 센서’를 탑재해 향상된 감도와 뛰어난 해상도를 자랑한다.

또한 고해상도 4K HDR 영상 촬영이 가능해 사진뿐 아니라 영상 촬영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갖췄다. a7 III의 국내 출시가는 249만9000원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수입 미니밴 강자 ‘뉴 시에나’… 카니발에 도전장

토요타코리아 디자인·안전성 강화

기아자동차카니발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미니밴 시장이 도요타의 신형 ‘시에나’가 등장해 경쟁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기아차가 카니발 부분변경 신제품을 3월 13일 내놓은데 이어 도요타가 대표 미니밴인 시에나의 신형을 19일 출시했다. 판매량이나 가격면에서 카니발이 앞서고 있다. 그러나 시에나를 향한 국내 소비자의 구매도 적지 않다.

토요타코리아는 19일부터 전국 전시장을 통해 ‘뉴 시에나’ 판매에 들어간다. 시에나는 동급 유일의 2열 오토만 시트, 3열 파워 폴딩 시트, 듀얼 문루프 및 8개의 에어백을 갖춰 2011년 국내 출시 이후 ‘수입차 프리미엄 미니밴의 선구자’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에 선보인 신형 시에나는 미니밴 최고수준의 출력을 보유한 301마력 V6 3.5L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의 조합은 모든 주행 상황에서 파워풀하면서도 연료효율이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도요타 뉴 시에나.

수입 미니밴 유일의 4륜구동 모델은 액티브 토크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돼 전·후륜에 적절한 토크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핸들링과 노면 접지력을 제공한다. 또 타이어 펌프 시에나도 일정 거리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런-플랫 타이어를 장착했다.

안전사양으로는 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차선이탈 경고(LDA),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DRC),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PCS), 오토매

틱 하이빔(AHB) 등으로 구성된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TSS)’를 새롭게 적용했고,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HAC)를 추가해 안전성을 더욱 높였다.

이 외에도 신규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적용으로 직관적인 화면 조작이 가능하며 USB 비디오 파일 재생, 미라캐스트 기능 등을 제공한다. 가격(VAT 포함)은 2륜구동 5440만원, 4륜구동 572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25년 달린 스포티지, 판매량 500만대 돌파

기아차 해외에서만 432만대 판매 프라이트 이어 두번째 500만대 기록

기아자동차의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스포티지(사진)’가 출시 25년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대를 넘어섰다.

기아차는 지난 1993년 7월 출시된 스포티지의 세계 시장 누적판매 대수가 지난 달 말 기준 500만3537대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에서만 68만4186대가 팔렸고, 수출되거나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스포티지의 판매량이 각각 196만6414대, 235만 2937대로 나타났다.

스포티지 1세대 모델은 출시 첫해 1만4024대를 시작으로 2003년 단종될 때까지 55만7668대(국내 9만4602, 해외 46만3066대)가 판매됐다. 특히 2000년에는 스포티지 1세대 모델의 수출량이 11만195대에 이르러, 기아차 창사 이래 SUV 차종으로는 처음 ‘수출 연

간 10만대 이상’ 타이틀을 얻었다.

2004년 출시된 2세대 스포티지는 2016년까지 국내 20만9746대(2004~2010년), 수출 52만7783대(2004~2010년), 해외공장 판매 48만6247대(2007~2016년) 등 총 122만3776대가 판매됐다.

2010년 출시된 3세대 스포티지는 2014

년에 누적 판매량 300만대를 돌파했다. 신형 4세대 스포티지는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어 2015년 9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국내 12만5492대, 수출 34만2898대, 해외공장 판매 56만8557대 등 103만6947대가 팔렸다.

기아차 모델의 ‘누적판매 500만대’ 기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기아차 해외 전략형 소형 승용차 ‘프라이트’가 602만여대가 판매된 바 있다. 현대차 중에서는 쏘나타(2월 기준 약 850만대), 아반떼(약 1250만대), 투싼(약 570만대) 등 3개 모델이 이미 500만대를 뛰어넘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출시 25주년을 맞아 디자인을 개선하고 최신 사양을 대거 적용한 상품성 개선(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체험하고 빌린다’… AI·VR 서비스 도입

SK렌터카 ‘다이렉트 서비스’ 첫 선

SK렌터카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한 ‘SK장기렌터카 다이렉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SK네트웍스가 19일 밝혔다.

새 서비스에서 주목할 점은 일반 다이렉트 상품과 달리 국내 최고 수준의 AI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장기렌터카 다이렉트 서비스는 SK C&C의 AI 시스템인 에이브

릴을 적용해 ‘AI 차량 추천 기능’을 통해 기존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차종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의 주말 나들이용’, ‘유지비가 적게 드는 차’, ‘월 렌트비용 30만원대 차’ 등 트렌디한 키워드들을 입력하면 고객 취향에 맞는 차량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국내에 출시한 33개 차종의 내부 모습을 모두 VR로 볼 수 있어 고객들이 실제로 탑승해 보지 않고도 마음에 드는 차량을 고를 수 있다. /양성운 기자

年 3~4% 고금리 적금, 저축銀 상품 일색

시중금리 상승분 적금에도 적용
우대금리 전년 비 1~2%p 상승
우대조건 따라 적립방법 선택해야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각 은행이 최고 연 3~4%대의 이자를 주는 적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분이 적금에도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고 우대금리는 각각 4.70%, 4.60%대로 지난해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2017년 11월 30일 인상)보다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고 우대금리는 말 그대로 최고 우대조건을 충족했을 때 주는 금리다. 우대조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입 전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최고 우대금리(연 4.70%)를 제공하는 우리은행(우리웰치100여행

(저축은행 (정액적립식·자유적립식) 적금상품 순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순위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금융회사	상품명	세전이자율	금융회사	상품명	세전이자율
1	조흥저축은행	정기적금	3.10%	조흥저축은행	정기적금	2.67%
2	솔브레인지축은행	솔솔한정기적금	3.00%	한국투자저축은행	스마트뱅크 정기적금	2.60%
3	아산저축은행	꿈나무장학적금	3.00%	한국투자저축은행	e-PLAN 인터넷정기적금	2.60%
4	아주저축은행	삼삼오오함께만든적금	3.00%	금회저축은행	e-정기적금	2.50%
5	키움YES저축은행	SB특독 키워드림 정기적금	3.00%	청주저축은행	정기적금	2.50%
6	안양저축은행	비대면-정기적금	2.90%	한국투자저축은행	정기적금	2.50%
7	키움YES저축은행	키워드림 e-정기적금	2.90%	OSB저축은행	정기적금	2.50%
8	강원저축은행	정기적금	2.80%	페퍼저축은행	정기적금	2.42%
9	금화저축은행	e-행복드림정기적금	2.80%	구미저축은행	정기적금	2.40%
10	대신저축은행	스마트정기적금	2.80%	금화저축은행	정기적금	2.40%

적금)의 경우 첫 거래 또는 급여·연금·공과금 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또 우리카드 자동이체 실적이 충족되고 신규고객으로서 350만원 이상 사용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고금리 연 4.60%를 제공하는 OK저축은행 'OK VIP 적금상품'의 경우 방카슈랑스에 가입하고, 월 납입액이

49만원 이상일 경우 적금을 개설할 수 있다.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자율은 우리웰치100여행적금 연 1.80%, OK VIP 적금상품 연 2.20%로 다른 적금보다 낮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대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본인의 생활패턴에 맞는 적립방법을 선택해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할 만하다.

적금은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으로 적립방식이 분리돼 있다. 정액적립식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급여생활자(salaried man)에게 좋은 반면, 자유적립식은 적립액을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급여액이 일정치 않거나, 보너스나 목돈

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프리랜서에게 적합하다.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의 적금상품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우대금리를 제외하고 적금상품을 비교한 결과 은행은 세전 연 2.20%(우리은행 우리스마트폰적금), 저축은행은 연 3.10%(조흥저축은행 정기적금)이었다. 2금융권으로 불리는 저축은행의 이자율이 0.90%포인트 더 높은 셈이다. 1금융권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면 저축은행 적금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 2011~2012년 대형 저축은행들의 줄도산으로 예금자들이 돈을 찾지 못해 손해를 본 경우가 있다.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적금 가입을 꺼리는 이유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금융기관(은행·인터넷 전문은행·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각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각 금융사별로 5000만원 단위로 분산해서 넣어두는 방법도 있다.

/나유리 기자 yul15@metroseoul.co.kr.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1일 지점장' 근무를 통해 영업 현장과 소통 경영을 실시했다. 손 행장(왼쪽 네번 째)이 영업 현장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우리은행

손태승 우리은행장, '1일 지점장' 현장소통

우리은행은 손태승 은행장이 서울 송파구 일선 영업점을 방문해 '1일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현장 직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손 행장은 아침 일찍 출근한 직원들과 다과 시간을 갖고 영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직원들과 거래처를 방문해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현장 직원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다.

손 행장은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만족하고 다닐 수 있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며 "솔선수범하여 은행 발전을 위해 노력할테니 여러분도 저를 믿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손 행장은 취임 시 강조했던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은행 만들기' 일환으로 일선 현장을 돌며 소통경영에 나선다.

그는 지난 16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 34개 영업본부를 방문해 행원, 지점장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KB국민은행 미얀마근로자 한국어교실 운영

KB국민은행은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외환센터에서 '미얀마근로자를 위한 한국어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오픈한 의정부 외환센터는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일요일에 영업을 한다. KB국민은행은 미얀마커뮤니티와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외환센터 내 2층에서 매주 일요일 한국어 교실을 운영한다.

한국어교실은 교육정원을 넘는 신청자가 몰리는 등 경기도 전역에 근무하는 미얀마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금융그룹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마이크로 파이낸스 법인을 설립해 미얀마 현지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얀마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평일 은행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원곡동(안산), 오장동(서울), 김해(경남), 경안(경기 광주시), 의정부(경기 의정부시)에서 일요일 영업을 하고 있다.

신한銀, '자산·부채 자동관리 시스템' 개발

국내은행 최초 1년간 자체개발 진행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신한은행은 국내은행 최초로 '자산부채종합관리(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은행은 자산과 부채를 종합 관리해 금리·유동성 등 각종 리스크를 적정 범위내로 통제하면서 내재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방대한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과 산출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내 은행들은 해외업체가 개발한 패키지를 사용해 왔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쌓아온 리스크 관리 역량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1년여 간 자체개발을 진행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

리스크 관리의 핵심인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스템은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로, 원하는 결과

를 얻어내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데이터 입력의 효율성 향상 및 데이터 간 정합성 증대로 날로 규제가 강화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다른 은행과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외부 시스템을 들여와 은행의 필요에 맞게 수정하는데 소요되던 시간 및 비용 또한 절약이 가능해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한 자체 ALM 시스템은 신한은행이 30여년간 쌓아온 ALM 지식 및 IT역량이 집대성되어 탄생한 결과물"이라며 "해외 점포에도 자체개발 ALM 시스템을 적용해 대한민국 금융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Advertorial Corner

씨티은행 모바일 직장인신용대출 '1주년' 럭키 이벤트 진행

한국씨티은행이 오는 31일까지 씨티 모바일 직장인신용대출 출시 1주년을 맞아 '럭키(Luck-key)이벤트'를 진행한다.

럭키이벤트는 씨티모바일 앱을 통해 직장인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황금열쇠와 삼성 갤럭시 S9, 커피 기프트콘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대출을 신청하면 럭키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씨티 모바일 직장인신용대출은 번거로운 증빙서류 없이 대출 신청부터 입금까지 모든 과정이 씨티모바일 앱에서 가능한 상품으로, 한국씨티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또 한국씨티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0.5%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이달 31일까지 대출을 받는 고객 모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모바일 직장인신용대출 신청자에게 적



용되는 금리인하 혜택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벤트는 PC를 통한 온라인 직장인신용대출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된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연소득의 최대 2배까지 가능한 넉넉한 한도와 절차의 간편함 그리고 신청부터 입금까지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장점으로 인해 이용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더 많은 고객들이 쉽고 빠른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 및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www.citibank.co.kr)나 씨티모바일 앱 또는 씨티폰(1588-7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년 평창의 겨울을 세계가 기억할 것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2018 평창 대회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루어 낸 기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

추운 날씨에 묵묵히 땀 흘려 주신 자원봉사자들,

안전을 책임져 주신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대원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해 주신 후원기업 및 협력업체,

건강한 식사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힘쓰신 조리사와 환경미화원들,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강원도민과 평창, 강릉, 정선의 군민, 시민들,

그리고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 다이제스트

ELS 및 DLS 10종 공모
- 3/21(수)까지 모집

KB증권



KB증권 ELS·DLS 등 총 10종 공모

KB증권은 오는 21일까지 3개 기초자산(Nikkei225·HSCEI·S&P500)으로 연 7.5%(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able ELS 450호(3년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함한 원금비보장형 추가연계증권(ELS) 8종,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2종 등 총 10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OSPI200지수와 홍콩恒生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Bable ELS 445호(3인덱스 울트라 스텝다운형)는 노 낙인(No Knock-In Barrier) 구조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를 주며, 최고 연 5.7%(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신나는 한판 그웨잇! 이벤트 실시



신한금융투자 '신나는 한판 그웨잇!'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신나는 한판' 내에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며 '신나는 한판 그웨잇!' 이벤트를 4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신나는 한판'은 신한금융그룹의 은행, 카드, 생명, 금융투자자의 핵심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권 최초의 통합 모바일 플랫폼이다. 현재 신한금융그룹의 각 계열사 대표앱(신한i알파, SOL뱅크, 신한FAN, 스마트창구)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문호 기자

미국달러 전망과 글로벌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일시 2018.03.21(수) 오후 4시
장소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5층 연수실



한국투자증권 해외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1일 개인투자자를 위한 '미국달러 전망 및 글로벌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박정우 경제분석 담당 애널리스트와 백찬규 해외주식 담당 애널리스트가 강연자로 나서 미국달러와 글로벌 경제를 진단하고, 2분기 해외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강의 후에는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으로도 매월 셋째 수요일에 해외 유망주식, 글로벌ETF 투자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착순 50명까지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 상가·오피스 ↑

오피스·상가·지식산업센터 등 수익률 오름세 나타나... 관심 ↑

최근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 트렌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로 수익형 부동산 대부분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요즘 오피스텔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틈새상품인 오피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는 선별적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19일 KB국민은행 오피스텔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서울 임대수익률은 4.86%다. 지난해 1월 5.11%와 비교하면 0.2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작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6.73%, 집합상가 투자수익률은 6.29%다. 오피스와 집합상가 모두 오피스텔 수익률 대비 1%포인트 이상 높다.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인 지식산업센

〈수도권 주요 수익형 부동산 분양리스트〉

위치	단지명	연면적㎡(규모)	분양문의
동탄테크노밸리 도시지원시설 14블록	금강펜테리움 IX타워	28만 7,343	1899-4578
경기 용인시 역북지구 A블록	용인역북 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 단지 내 상가	1,704	1599-2329
대전 유성구 복용동	디오토몰	8만7,955	042-825-6655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 GT타워	2만3,184	032-567-4610

*상기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각사

터는 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지난 2006년 751건에서 2016년 4987건으로 약 6.6배 증가했다. 지식산업센터의 신규 공급 물량 증가, 용자지원, 세금감면 등으로 신규 창업 및 사무실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수익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배후 수요가 풍부한 곳은 불황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수익형 상품으로 금강주택은 경기도 동탄2신도시 동탄테크노밸리 도시지원시설 14블록에서 '금강펜테리움 IX타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다. 지식산업센터 2개동과 기숙사 1개동이며 대지면적 5만1801㎡, 연면적 28만7343㎡다. 산업클러스터로 구축되는 동탄테크노밸리에 위치하며 SRT와 GTX(예정)를 이용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과도 인접해 있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오피스텔형 기숙사를 함께 분양하는 점도

눈에 띈다. 23~49㎡ 675실이며, 2층에는 육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원개발은 이달 중 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 A블록에 공급하는 '용인역북 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 단지내 상가를 분양한다.

상가는 연면적 1704㎡, 34호실이며 용인 역북지구는 41만7284㎡ 규모로 올해까지 4000여 가구가 입주한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서는 디오토몰 상가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약 8만7955㎡ 규모, 지상 6층으로 건립되는 디오토몰은 대규모 자동차 매장과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외식 등을 할 수 있는 '자동차 복합매대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는 가좌GT타워가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4층 1개동, 연면적 2만3,184㎡ 규모다. 인천지하철 2호선 가좌역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 경인고속도로 가좌IC가 약 1km 거리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회계법인 10곳 중 7곳, 최소 감사시간 규정 없어

관리 시스템·모니터링 관리 소홀 사전점검 등 관련 내부통제 미흡

회계법인 10곳 중 7곳은 최소 감사시간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직접 품질관리감리대상 회계법인 41개사의 감사시간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담당이사·품질관리책임자의 최소 감사시간을 규정화한 회계법인은 11개사(26.8%)에 불과했다. 나머지 30사(73.2%)는 최소 감사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해당 41개 회계법인은 상장기업의 88.2%, 비상장기업 59.6%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최소 감사투입시간 관리현황〉

구분	규정화됨	규정화 미비	합계
4대 회계법인	3 (75.0%)	1 (25.0%)	4
중소형	8 (21.6%)	29 (78.4%)	37
합계	11 (26.8%)	30 (73.2%)	41

* ()안은 규모별 점검대상 대비 비중.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 감사투입시간을 정하고 감사시간이 최소 시간에 미달하면 사전심리 시 미달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감사투입시간 부족사실을 담당이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시간관리시스템이나 모니터링도 미흡했다. 전산시스템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삼일·삼정

·안진·한영 등 대형 회계법인 4개사를 포함한 27개사로 집계됐다. 반면 14개사는 엑셀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관리해 감사시간 입력의 적시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감사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회계법인은 총 41개사 중 18개사로 절반이 안됐다. 중소형은 물론 대형 회계법인 두 곳도 감사시간 입력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시간에 대해 공시 전 사전점검 절차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은 28개사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 4곳 중 한 곳을 빼고는 모두 공시 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공시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제도나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해 감사시간이 과소 투입된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사투입시간을 감리대상 선정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올해 코스피 상승률 1%... G20 국가 중 7위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 보여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주요 20개국(G20) 대표지수 중 7위를 기록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코스피는 2492.38로 마감, 작년 말보다 1.0% 오른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G20 국가의 대표지수 중 코스피 상승률은 브라질(11.2%), 아르헨티나(8.8%), 러시아(8.0%), 사우디아라비아(7.2%), 이탈리아(3.9%), 터키(1.6%)에 이어 7번째다.

그 뒤를 미국(0.6%)이 이었다. 나머지 영국(-7.1%), 독일(-4.4%), 일본(-4.2%), 캐나다(-3.3%), 멕시코(-3.1%), 유럽연합(-2.6%), 호주(-2.3%), 남아프리카공화국(-2.2%), 인도(-1.1%), 프랑스(-0.9%), 인도네시아(-0.5%), 중국(-0.5%)은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미국발 충격으로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은 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빠

〈G20 국가 대표지수 등락률〉

순위	국가명	대표지수명	17년말 대비 등락률(%)	순위	국가명	대표지수명	17년말 대비 등락률(%)
1	브라질	BOVESPA	11.20	10	인도네시아	JKSE	-0.50
2	아르헨티나	Merval	8.80	11	프랑스	CAC40	-0.90
3	러시아	RTSI	8.00	12	인도	Sensitive3.0	-1.10
4	사우디	TASI	7.20	13	남아공	ALSH	-2.20
참고	신중국	MSCI신흥	5.00	14	호주	ALL ORD	-2.30
5	이탈리아	FTSE MIB	3.90	15	EU	STOXX50	-2.60
6	터키	BIST 100	1.60	16	멕시코	IPC	-3.10
참고	선진국	MSCI 선진	1.40	17	캐나다	S&P TSX	-3.30
7	한국	KOSPI	1.00	18	일본	Nikkei225	-4.20
8	미국	Dow 3.0	0.60	19	독일	DAX30	-4.40
9	중국	ShangHai	-0.50	20	영국	FTSE100	-7.10

* 2018년 3월 15일 기준. /자료=한국거래소

르게 회복된 셈이다.

이로써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 1월 29일 지수(종가 기준 2598.19)의 95.9% 수준으로 회복됐다.

G20 국가의 대표지수 중 터키(97.0%)가 사상 최고치에 가장 근접해있지만 코스피도 브라질(96.9%)에 이어 3

번째로 가까운 수준이다.

미국(93.5%)은 7번째다.

1989년 12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일본(56.0%)과 중국(54.0%), 러시아(50.1%), 이탈리아(45.3%), 사우디아라비아(37.6%)가 16~20번째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김문호 기자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뉴딜 영상 공모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대한 영상 공모전 '나의 도시를 재생하라'를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도시재생 뉴딜에 관한 이야기로 '도시재생 뉴딜과 지역 일자리(신규 창업 등)', '도시재생 뉴딜과 지역공동체', '우리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알리기', '국가 지원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의 2분 이내의 창의적인 영상물로 3월 19일~5월 14일까지 약 두 달간 공모접수를 한다.

출품작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하여 대상 500만원 등 총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또한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인턴 채용 기회를 부여한다.

응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www.city.go.kr)과 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newdeal4you)를 참조하면 된다. /이규성 기자

文 대통령의 개헌 강공... “해외 순방중인 26일 발의”

국회 합의엔 文발의 취소할수도
동시 투표엔 비용 1200억 절감
文대통령, 임시국회 연설도 검토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가 26일 이전에 개헌안을 놓고 합의를 도출하면 문 대통령은 이를 존중해 대통령 발의를 취소할 수도 있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일부 정치권의 반대에도 개헌안 발의를 강행키로 한 것은 오는 6월 13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국민과 약속을 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1200억원 이상의 국

민 세금을 더 써야 한다”며 배수진을 친 바 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21일 개헌안 발의도 검토했었다. 이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

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발의 날짜를 26일로 미룬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헌법은 대통령 개헌안인든, 국회 개헌안인든 발의 후 60일 이내에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민투표 18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모두 합하면 78일이 물리적으로 필요한데 (6·13 지방선거일에 맞춘)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8일 사이에 베트남 국민 방문과 아랍에미리트(UAE) 공식방문이 예정돼 있다.

발의 날짜로 21일이 검토됐던 것도 순방직전에 결재를 끝내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회의 뜻을 받아들여 26일에 발의기로 한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일정 사이에 세 차례의 전자결재를 해야 한다. 개헌안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시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송부시 ▲의결 후 공고를 하기 위해서 등 각각의 결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안에 대해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초청해 대화하고, 정무수석이나 비서관들을 국회에 보내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을, 21일에는 지

방분권과 국민주권을,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내용 등을 사흘에 걸쳐 모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개헌안의 내용이 너무 많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나눠서 공개하기로 했다는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개헌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3가지”라면서 “6·13 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해야하느냐, 아니냐인데 이에 대해선 압도적으로 동시투표를 해야한다고 모인 것으로 판단된다. 권력구조 형태도 대통령 중심제, 의원내각제, 변형된 의원내각제 중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국민의 일반적 의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마지막 쟁점이 개헌 발의 주체인데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발의를 해도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할 시간이 있는 만큼 (일부에서)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겨라’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문 대통령이 이번에 개헌안을 발의한 뒤 공고가 되더라도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개헌안 발의 26일로 미뤘지만... 野 “관계개헌” 반발

野, 책임총리제로 국가권력 분산해야
우원식 “국회가 먼저 해야할 일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21일로 예정돼 있던 정부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늦췄지만 여야는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한만큼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에 끌려가는 모습의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책임총리제가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비난을 하기보다는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그동안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되는 ‘2+2+2 회의’ 등이 (한국당의 반대로) 계속 안 되지 않았다. 섭섭하고 유감스럽다”며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어떤 연유가 있

나. 5일간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당의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 연기 결정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우선 민주당은 사실상의 국회 개헌안 마련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 발의를 위해 마지막 협상과 결단이 남았다”며 “촛불 혁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 개헌 추진에 (야당도) 동참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6월 개헌안 발의-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로 6월 개헌을 완성하자고 하는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정점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개헌안 등 정국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국당이 6월 발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개헌을 하지 말자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책임총리제 주장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쓰고 ‘내각제 개헌’이라고 읽는 것이다. 총리의 국회 추천 또는 선출 주장은 국민 선호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관계개헌 명분 확

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스스로 생각해도 관계개헌 논란이 부담스러웠는지 궁색하게나마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면서 “더는 개헌을 정치적이고 정략의 도구로만 바라보면서 개헌 논의를 ‘아무 말 대잔치’로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창원 기자

6·13 공천 본격화... ‘넘치는’ 與 ‘텅빈’ 野

더불어민주, 실무회의 열고 일정논의
자유한국, 이석연 불출마 등 ‘인물난’

6·1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19일 중앙당 공천 관련 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며 공천 작업에 시동을 걸었으며, 야당은 분위기 반전을 위한 인재영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다만,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여당에 예비 후보자들이 물리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인물난’을 겪고 있으며 옆친데 뒷친격으로 전략공천에 대한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등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정성호 위원장, 김경협 부위원장, 김민기 수석 사무부총장(간사), 한정에·박경미·이재정 의원,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최자진 연세대 정외과 교수, 강수정 변호사 등이 선임됐으며,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김명진 전략기획위원장(간사), 윤후덕 의원, 이수진 중앙당 공동노동위원장, 정성호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이근형 원지건설팀 대표, 정한범 국방대 정치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실무회의를 열고 향

후 위원회 일정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공천 작업을 시작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인물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대표로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 제안을 받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욱 인재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의 전략공천 방침에 대한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의 17개 광역단체장 중 부산시장 후보 서병수 현 시장,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현 시장,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현 시장, 충북지사 후보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 제주지사 후보 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중앙-시도당 맑은 공천 연석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방훈 전 제주 정부부지사 등 5곳의 후보를 전략공천한 바 있다.

서울시장 공천을 신청한 김경기 전 중국 상하이 총영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 자메시지로 “1995년 서울시장 직선제 도입 후 한국당은 그 전신이 되는 당에서부터 자유경선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며 “이토록 자랑스러운 원칙과 관행을 홍대표가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고 침체되고 기가 꺾인 보수세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상식”이라며 “원래부터 전략공천 예정이었다면 서울시장 후보는 왜 공모했나. 정치사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부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종혁 전 최고위원도 부산시장 후보로 서병수 현 시장이 확정되자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마시던 물에 침 뱉지는 않겠다. 누구도, 당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반시대적, 반개혁적 길을 걷다 망한 새누리당의 전철을 답습하는 한국당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 mediaco@

백화점의 대변신... '만물상' 버리고 이젠 '전문관 시대'

롯데백

단일아이템 OIO 기획

현대백

천호점에 홈퍼니싱전문관

유명 브랜드로 즐지어서 소비자를 맞이했던 백화점의 내부가 변화되고 있다. 모바일 쇼핑이 대세로 떠오르며 비교적 성장세가 주춤한 백화점이 집객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관'을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백화점 전문관은 내부에 벽을 두고 단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고수하던 기존과 달리 카테고리별로 매장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에게 최근 떠오르는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쇼핑 환경을 만들어주는 한편 오프라인 점포만의 특장점을 내세웠다는 분석이다.

◆트렌드 내세운 편집·전문관 확대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가 오프라인 점포의 특장점을 한껏 끌어올린 '전문관'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요가전문매장 전경.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오는 20일 천호점 9층 전체를 홈퍼니싱 전문관으로 리뉴얼 오픈한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같은 규모의 리빙관을 지난 1월 10층에 오픈, 이번 리뉴얼로 총 5300㎡ 규모의 전문관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에 오픈한 리빙관에는 각 상품군별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엄선한 새로운 콘셉트의 전문 매장이 들어섰다.

다이슨과 협업해 일반 제품 대비 10배 가량 비싼 핸드드라이어를 매장에 비치하고 헤어연출 시연 및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헤어숍 '에코자텔'과 체형에 맞는 기능성 베개를 맞춤 제작해주는 '로프티'가 대표적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리빙의 경우 상품의 고객이 직접 소재 및 크기를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등 체험을 한 뒤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점포에서

구매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상품군"이라며 "수준 높은 상품 연출과 매장 구성을 내세워 1인 가구뿐 아니라 가족 단위 고객 모두 즐길 수 있는 매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근 현대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요가를 테마로 한 전문 매장을 선보이기도 했다. 수준 높은 요가 강좌 운영은 물론, 프리미엄 요가 용품을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숍과 고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라운지 등으로 구성된 '토탈 요가 전문 매장'이다.

신세계백화점도 지난해 9월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인 부산 센텀시티점에 9300㎡ 규모에 달하는 생활전문관을 선보였다. 부산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은 물론 부산 외 지역 또는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로 수요가 충족되고 있다고 신세계측은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은 브랜드력보다 제품력을 더 따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백화점의 전문관이 늘어나는 이유 또한 이러한 '가성비' 트렌드가 적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단일 아이템 매장도 등장

롯데백화점은 올해 봄·여름(SS) 정기 개편 시즌을 맞아 단일 아이템에 집중한 매장 '원 아이템 온니(OIO)'를 기획했다. 다양한 상품을 모은 기존 전문관과 달리 '한 가지 아이템'만 주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남성 전용 캐시미어 매장 '캐시미어 하우스', 모나미 펜 전문 매장 '모나미 컨셉 스토어' 등을 선보였다.

향후에는 꽃 전문 매장과 골프와 전문 매장 등 기존보다 더 세분화된 상품 진열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덕후, 매니아'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존 백화점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동혁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장은 "한 상품에 집중하는 '원 아이템 온니(OIO)' 매장은 일반 편집 매장과는 다르게 단일 트렌드 아이템을 이슈화해서 매니아 층을 공략할 수 있다"며 "기존에 백화점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고객에게 신선함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남북관계, 전례없는 기회 찾아올 것”

상의 '남북관계 컨퍼런스'

북 경제, 시장경제 요소 늘어

지나친 기대·의구심 자제해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이 추진 중인 가운데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전례 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의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는 변수가 많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에 참석한 패널들은 남북 관계가 최근 몇 년간의 지속됐던 대립에서 완화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점

에 공감했다. 그러나 다양한 온도 차이를 나타냈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며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와 남북 간 신뢰 쌓기 등을 볼 때 전례 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은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아직 남북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변수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아 제약 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북한 경제가 변화해 상당 부분 개방화됐다고 평가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 경제는 김정일 정권 이후 시장경제

요소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5·30 담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부여했다"며 "2014년 기업소법 개정으로 신흥부유층인 '돈주'도 북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가계는 수입 3분의 2 이상을 장마당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는데, 충전식 선불카드 수준이지만 신용카드도 통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유층인 사금융이 금융기관 역할을 맡기도 한다"며 "시장경제 요소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의 화해 국면에서 우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양 교수는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남대문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서는 정보가 중요하다"며 "정보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대·재생산되면서 사실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철 교수도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을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북한의 변화, 실체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갖고 제대로 이해해야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재계가 남북 협력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나

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이날 열린 컨퍼런스는 최근 '2018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조성된 남북화해 무드 상황에서 기획된 게 아니라 지난 1월쯤 기획된 행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북한과 관련한 현 시점에서는 지나친 기대감 표현이나 지나친 의구심, 의심의 표현도 도움이 안된다"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인터넷방송 '연령별 등급제' 도입 시급

15세 이용가인 '베틀그라운드'의 게임을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방송을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보는 것이 문제가 될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양방향 소통을 즐길 수 있는 1인 게임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아프리카TV 트래픽의 65%는 게임이 차지한다. 문제는 인터넷 접속 연령이 낮아지면서 연령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게임을 초등학생·중학생 등 청소년들이 인터넷방송으로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1인 방송은 최근 장애인이나 여성을 겨냥한 사회적 약자 비하, 폭력적인 언행과 음란한 영상 등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2018년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

서 별풍선이나 선물과 같은 유료 아이템 충전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추는 1인 방송 역기능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협의가 이뤄진 사업자는 아프리카TV, 카카오TV 등이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하루 결제 한도 100만원으로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용자의 소비 패턴과 플랫폼·서비스 확장을 통한 수익 창출 다변화로 매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TV와 같이 '12세', '15세' 등 연령별 등급제를 인터넷 방송 플랫폼 업체와 진행자들이 정하는 방안도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당장 시행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업

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관건은 연령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게임 방송을 진행해 게임을 영상화시켰을 때 도 연령 등급을 제한해야 하는가다. 방통위나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청소년불가 게임과 같이 연령 등급이 제한된 게임 진행 영상물을 보는 시청자도 연령별로 접근할 수 있는 영상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들이 유해한 영상을 접하고 중독 등 부작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특정 게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 제한이 사실상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적게 책정해도 200여개가 넘는 게임을 일일이 영상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美 철강관세 면제 될까... "더 지켜봐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가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양국이 '실질적 논의의 진전'을 거둔 점에 비추어 면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통상주무부차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일인만큼 선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은 지난주 한미 통상장관회담과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을 마친 뒤에도 지금까지 미국에 남아 막판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면제를 꼭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협상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미국은 우리를 동맹국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성용 기자 grandtrust@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1971년 9월 영국 애플도어사와 조선소 거립에 관한 협의를 진행중인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서산농장에서 키운 '통일소'를 몰고 북한을 방문했다. 분단 이후 정부관리의 동행 없이 민간인 신분으로 판문점을 통과한 첫 번째 인물이었다.



1985년 포니엑셀 신차 발표회장을 찾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포니엑셀은 현대차에서 처음으로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생산한 차량으로 1986년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아산 정주영 닷컴

“임자! 해봤어?”... 리더십 실종의 시대, 정주영이 그림다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17주기 '기업가 정신'의 대표적인 인물 산업화 일궈낸 흠수저의 업적들과 성장동력 발굴하는 추진력 재조명

오는 21일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1915년 11월 25일~2001년 3월 21일)의 서거 17주기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정 명예회장의 '도전' 정신이 최근 혼돈에 빠진 한국 기업들에 또 다시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 쉬운 길을 걷기보다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성공시키는 '불굴

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영원한 도전자'라고 불리는 정 명예회장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운 대표적 인물이다. 정 명예회장은 가난한 시골농부의 장남,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제약을 뛰어넘어 세계적 기업을 일군 인간승리의 주인공이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저 먼 곳의 발과 눈으로 향하곤 했다'는 부친의 피를 물려 받은 정 명예회장은 쌀집가게 배달원부터 시작해 미곡상회, 자동차수리공장, 건설회사 등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시대 흐름을 읽는 타고난 안목으로 최고 부자 대열에 우뚝섰다.

'임자! 해봤어?'라는 도전정신으로 유명한 정 회장은 어린시절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소 1마리를 몰래 끌고 나온 후 불효를 갚겠다며 1998년 6월16일 통일소 500마리를 현대자동차가 만든 트럭에 싣고 북으로 가 세계적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6·25전쟁을 겪고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서 정 명예회장은 창조적 기업가 정신과 강한 추진력으로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을 설립해 세계 시장에 진출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 서산간척지 개발 등 국내외 수많은 역사적 사업을 이끌었다. 지금도 '흠수저'의 대표적 인물로 정주

영 회장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미국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1996년 출간한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우리나라를 '기업가정신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언급하기도 했다. 세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가들의 과감한 도전이 없으면 사회·경제적으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정 명예회장의 불굴의 개척정신처럼 스스로 감점이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잠재력 있는 기술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명예회장의 추모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용히 치뤄질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1일 고 정주영 명예회장 17주기에 분향소 설치 대신 추모 음악회와 선영 참배 등으로 명예회장의 17주기를 추모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1년 정 명예회장 타계 이후 매년 울산 분사 체육관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대규모 추모식을 열어왔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추모식 대신 음악회와 선영 참배만 하고 있다. 범현대가는 정 명예회장의 17주기 하루 전인 20일 저녁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그룹별로 선영 참배에 나설 예정이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청와대 본관 전경. /뉴시스

응답하라 청와대?... 국민청원의 명암 '긍정적 취지 공감' vs '분노 배출창구'

성인 대상 설문 ... 84%가 긍정 평가 새 정부 출범 후 선보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도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약 5명은 직간접적으로 게시판에 참여했고, 청원 남발 등을 보완하기 위한 실명제 도입 등의 의견도 있었다. 19일 인크루트가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성인 남녀 3516명을 대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넘는 83.7%가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77.4%는 '국민청원 제도의 신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이처럼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 국민 여론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에서 '국민들의 크고 작은 여론이 각종 법안이나 생활제도 변경 등에 잘 반영되는 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는 58.1%로 나타났다. 이 때문인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는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달하는 44.8%로 집계됐다. 32.1%

는 '투표에만 참여했다'고 했고, 7.9%는 '청원 게재와 투표에 모두 참여했다'고 답했다. 4.8%는 '투표 참여 없이 청원만 게재했다'고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은 '청와대와의 직접 소통 공간이라는 점'(32.0%)을 들어 공감한다고 했고, 이어 '상대적으로 의견표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표출의 장을 열어주었다는 점'(25.1%), '건전한 청원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것'(22.7%) 등을 매력적인 요소로 봤다. 반면, 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공론화된다'(20.2%), '단순한 분노의 배출창구가 될 수 있다'(17.8%), '과도한 의견 표출이 난무할 수 있다'(17.5%), '특정 개인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17.5%)는 점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실명제 도입'(28.8%), '과도한 청원을 줄일 수 있도록 청원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 마련 필요'(28.6%), '청원 대상자 중 특정 개인의 인권 보호 보장'(21.1%), '청원 답변 조건 상향'(15.4%)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용수 기자 hys@

“섬유산업 1.2조 투자해 2022년 5위 재탈환”

(세계 시장)

산업부 섬유패션산업 전략 발표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

한때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었던 화학 섬유산업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관련업계가 2022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사업구조 다각화 및 고용 창출에 나선다. 정부 또한 첨단 산업용섬유 집중 육성 및 섬유패션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2022년까지 세계 5대 섬유패션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휴비스 전주공장에서 섬유패션업계와 전문가,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섬유패션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섬유패션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고부가가치·차별화된 섬유패션 제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성장 돌파구

를 마련하고, 상생 산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탄소섬유, 슈퍼섬유 등 산업용섬유를 집중 육성해 현재 4%에 머물러 있는 세계시장 점유율을 2022년까지 10%로 끌어올리고 스마트의류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소비자 맞춤형의류 등 신산업 기반의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첨단 산업용섬유 집중 육성을 위해 초고강도(T-1000급), 범용(10달러 이하/kg) 탄소섬유 등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 용·복합소재, 메디컬 섬유, 안전보호용 섬유, 고성능 부직포 등 제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잉 등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및 수요연계 사업과 소방·경찰·전기 등 공공수요를 대상으로 한 제품개발과 현장실증을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 30명 이상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인증 기반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섬유패션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북과 대구·경북지역에는 '탄소산업', 서울·부산·대구지역은 '패션 의류' 등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한 스트림별 지역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우리 섬유패션산업이 지난 1987년 제조업 중 수출 100억 달러를 가장 먼저 달성하며 경제성장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고 현재도 고용의 8%를 책임지는 핵심주력 산업"이라며 "이번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재정립하는 한편, 국내 산업구조도 재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공정위 “38년 묵은 공정거래법 싹 바꾼다”

분야별 외부전문가 구성 특위 출범 공정거래위원회가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7월까지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검토하고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어 경쟁·기업집단·절차법제 분야 논의 과제 17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27회 수정을 함에 따라 흠뻑리진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면개편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장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했으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산하에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검찰, 구속영장 청구... MB 운명 이제 '법원의 손'에

뇌물수수 등 혐의 18개 안팎
이르면 21일 영장심사해 결정
다스 실소유 등 알았는지가 관건



100억원대 뇌물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조세포

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 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다. 그런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구조적 사실 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가, 최근까지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계속돼 온 점 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며 "통상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 시스템 따른 절차를 거쳐서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5일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 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

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단으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하고 나서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심사 끝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쳐 구속됐다. /이법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안희정 “합의에 의한 관계” 혐의 부인

두번째 출석 “조사 충실히 받겠다”
‘업무 관계 악용’ 등에 조사 초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신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며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고 답하며 서둘러 청사로 들어갔다.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날 출석한 안 전 지사에게

충남도 정부비서 김지은씨,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성폭력 관련 의혹과 경위, 입장 등을 캐물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충남도청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다음날인 9일 서부지검에 출석해 9시간 30분 가량 조사 받았다.

검찰은 당시 그의 출석이 사전 조율 등 준비 없이 진행됐고, 이후 A씨의 고소가 추가 제기돼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고소인들이 안 전 지사에 대해 제기한 혐의는 그가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했다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다.

이에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업무 관계를 악용했는지, 이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약하거나 혼란하게 할만한 방법을 썼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 전 지사의 조사는 두 번째인만큼, 검찰은 진술 내용과 소명 정도 등을 따진 뒤 신병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지사는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한 뒤 이튿날인 6일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김씨 측은 6일 안 전 지사를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7일 주장하고 14일 그를 고소했다.

/이법종 기자

강원랜드 부정합격 226명 전원 ‘점수 조작’

산업부, 이달말까지 퇴출조치
최종면접 탈락 17명 재직 확인

최근 정부가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한 226명을 면직 처분하기로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부정합격자 전원의 점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을 이달 말까지 퇴출조치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21일까지 산업부 감사인력 10명, 강원랜드 10명 등 총 20명의 합동감사반을 구성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 2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3년 강원랜드 하위원 교육생 선발 때 1·2차 선발과정에서 총 5268명이 응시해 518명이 최종 선발됐다. 정부 조사 결과 이 가운데 493명이 청탁리스트에 의해 관리된 합격자로 나타났다. 이 중 226명은 당초 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탈락자임에도 점수 조작으로 합격처리돼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이원 교육생 2차 선발과정에서는 부정행위에도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일부 응시자들(21명)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재차 청탁압력을 넣어 추가 합격돼 현재 17명이 재직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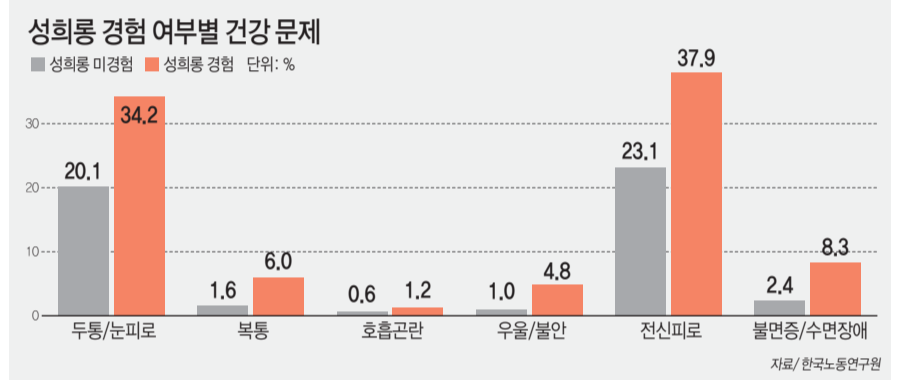
또 2013년 11월 강원랜드 워터월드 경력직 채용과정에서는 국회의원 전 비서

관의 부정채용을 위해서 맞춤형 채용조건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최종 부정합격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강원랜드 점수 조작 부정합격자 퇴출조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피해자 구제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정합격자 퇴출조치가 퇴출로 인한 사익 침해에 비해 피해자 구제 등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 채용제도 신뢰성 회복 등과 같은 공익 목적의 이익 회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정합격자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성희롱·추행 피해자 두통·우울증 등 시달려

노동부, 근로환경조사 분석

‘복통’ 미경험자의 3배 ‘우울’ 5배
직무만족도도 절반 수준밖에 안돼

최근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 (#MeToo: 나도 고발한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자들이 두통과 불안장애, 전신피로 등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근로환경조사 제4차년도 자료(2014)’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희롱 경험집단과 미경험집단을 구분해 이들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두통 또는 눈의 피로를 겪고 있다는 성희롱 경험자들의 비율이 34.2%로 성희롱 미경험자들(20.1%)보다 높았다.

또 성희롱 경험자들 가운데 복통을 앓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로 성희롱 미경험자들(1.6%)보다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응답 비율

도 1.2%로 성희롱 미경험자들(0.6%)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 피해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 증상인 우울증의 경우, 성희롱 경험자들 가운데 우울 또는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4.8%로 성희롱 미경험자들(1.0%)보다 무려 네 배 이상 높았다.

성희롱 경험자들 가운데 전신피로 증세를 겪고 있다는 비율도 37.9%로 성희롱 미경험자들(2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경험자들과 미경험자들의 직무만족 정도를 비교해 보면, 성희롱 경험자들의 점수는 0.112점으로 미경험자들의 0.274점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돼 성희롱 경험이 직무만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을 통해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나이가 어릴수록, 미숙련 노동자들이 숙련자들에 비해 성희롱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최신용 기자

여성 외국인노동자 성희롱·폭행 실태 점검

고용노동부, 사업장 504곳 대상

고용노동부는 이달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504곳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 성폭력 집중 합동 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일 발표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과 고용허가제 담당자가 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 중 농축산·어업 분야 사업장 비율은 약 70%,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비율은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고용부는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폭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해 여성 외국인노동자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근무 실태와 고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전남도·여수시 '2019 세계한상대회' 유치 추진

세계 韓商들 '여수'로 부른다

전시장·회의장·숙박시설 등 제안
한상재단 관계자 여수엑스포 초청

전남도와 여수시가 '2019 세계한상(韓商)대회' 여수 유치를 추진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여수시는 올해 행사 유치를 위해 오는 20일 재외동포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유치 신청서에는 전남도지사와 여수시장의 서한문을 비롯해 전시장, 회의장, 숙박시설, 관광투어 등 개최환경, 예산지원, 희망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단 TF(태스크포스)운영 등 유치제안 내용이 들어간다.

전남도는 다음달 20일 미국 델러스에서 열리는 제32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수 유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달 말 한상재단 관계자들이 개최 희망지인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를 둘러볼 수 있도록 초청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이 올해 행사 개최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전했다.

그동안 한상대회 개최도시인 서울(2002년~2003년)을 시작으로 제주(2004년), 경기(2005년), 부산(2006년~2007년), 제주(2008년), 인천(2009년), 대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여수세계박람회재단

구(2010년), 부산(2011년), 서울(2012년), 광주(2013년), 부산(2014년), 경주(2015년), 제주(2016년), 창원(2017년), 인천(2018년) 등이다.

전남도는 이달말 대회 예정지인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 한상재단 관계자의 사전방문을 추진한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유치가 확정되면 대회 기본·실행계획 수립과 TF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한상대회는 40여개국 1000여명의 세계한상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인 30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행사로 그동안 국내 기업인들이 해외 동포기업인을 통한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어왔다.

행사를 개최하려면 750일 이상 특급

호텔, 3800㎡ 이상 연회장, 6000㎡ 이상 전시장 등을 갖춰야 한다.

대회는 한상재단 15억 원과 유치 지자체 5억 원 등 20억 원을 들여 기업 전시회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및 포럼 등의 행사가 열린다.

전남도 관계자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동포기업인과 국내 기업인들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민족 경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재외동포경제인단체 주축로 매년 국내에서 개최해 온 한상대회를 여수에 유치하기로 했다. 호텔, 연회장, 전시장, 회의실, 예산지원 등이 모두 충족해 한상대회 유치신청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광양만경제자유구청장 공모 6명 지원

지난해 10월부터 공식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공모에 모두 6명이 응모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접수 마감 결과 전남도 전직 간부, 기업인, 코트라(KOTRA) 출신 등 6명이 지원했다.

지원자 가운데 전남도 소속 현직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서류심사, 27일 면접을 통해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인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복수 후보를

전남지사 권한대행에 추천하고, 권한대행은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임명 여부를 협의한다.

전남도는 다음 달 말까지는 임명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에 앞선 공모에서 코트라 출신 인사를 후보자로 내정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적합 의견을 제시해 임명이 무산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0월 권오봉 전 청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뒤 청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전남도-광주은행-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전남 사랑카드' 업무협약

전남도, 광주은행,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일 도청에서 '광주·전남 사랑카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했다.

광주은행은 사랑카드 이용금액의 0.5%를 고향 사랑 기금으로 조성해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

전남도는 저소득층 등 지원 대상을 발굴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한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광주시와도 같은 내용의 협약을 했다.

사랑카드는 골프장 이용금액 10만원 당 5000 포인트, 패밀리 레스토랑·커피 전문점·온라인 쇼핑과 예매·교통업종 이용 시 10% 등 월 최대 3만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사랑카드 연회비는 국내 전용 8000원, 해외 전용 1만원이다.

플래티늄 카드는 국내 전용 11만 8천 원·해외 전용 12만원, 아너스 카드는 국내 전용 29만 8000원·해외 전용 30만원이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AI 여파로 해남 '산이 매화축제' 취소

전남 해남군 산이면 보해매실농원에서 열린 '산이 매화축제'가 AI(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취소됐다.

해남군은 "전국적으로 AI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정부와 전남도가 행사를 자체토록 권고해 산이 매화축제 추진 위원회와 논의해 행사를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축제는 취소됐지만 보해매실농원은

오는 4월 1일까지 개방된다.

매년 3월초 개최되는 산이 매화축제는 국내에서 단일 면적으로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산이면 예정리에 위치한 약 14만평 규모의 보해 매실농원에서 개최돼 왔다.

해남군의 대표 축제인 산이 매화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전남 해남=김남중 기자



화려하게 물든 '여수 밤바다'

세계 최대 해상분수쇼 '빅오쇼' 개막

봄철 여수 밤바다를 화려하게 물들이는 '빅오쇼(Big-O Show)'가 오는 31일 개막한다.

해양수산부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분수쇼인 빅오쇼가 3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빅오쇼는 바다를 배경으로 설치된 '디오(The-O)'라는 원형 조형물 안에서 물과 불, 화려한 영상과 레이저 효과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세계 최대의 해상 분수쇼다.

지난 2013년 4월 여수박람회장 재개장

이래 현재까지 64만 명이 빅오쇼를 관람했으며 2017년 작년 한 해만 약 14만 명이 관람하는 등 명실상부한 여수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빅오쇼 관람은 빅오쇼 누리집(http://bigo.expo2012.kr)과 소셜커머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예매 후 현장에서 입장권으로 교환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 발권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전달된 모바일 입장권만 제시하면 바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예매한 경우에도 좌석을 사전에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람객의 편의를 높였다.

한편,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는 빅오쇼 개막을 기념하는 퀴즈 행사도 열린다.

이벤트는 빅오쇼 공식 페이스북에서 진행되며 퀴즈 당첨자 1등(10명)에게는 빅오쇼 무료 관람권(1인 2매), 2등(30명)에게는 캐릭터 상품 등 경품을 증정한다. 본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빅오쇼 공식 누리집,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전남선관위 전국 최초 '정책 개발 지원단' 출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정착을 위해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우리전남 정책개발지원단' 출범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단은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와 전라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 한국수

산업경영인전남연합회, 목포경찰서, 전남지체장애연합회, 전남청소년미래재단, 광주전남총학생회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우리전남 정책개발지원단'은 앞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과 함께 공약을 수집해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정책 선거 실천 약속과 축구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이번 출범식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정책 선거 중심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책 선거 정착을 위해 향후 각종 공식선거에서도 '우리전남 정책개발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수학이 재미없다면 '수학체험센터'로~"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길러주는 '광주 수학체험센터'가 문을 연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동구 윤림동 광주교육과학연구원에 총면적 316㎡ 규모로 수학체험센터를 개설해 오는 21일 개소식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수학체험센터는 체험센터, 수학사이버 체험실, 수학자료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초·중·고 학생들이 보고 만지고

활동하며 수학의 실용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초·중학생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고등학생이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상설 체험행사를 이용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학급 또는 동아리는 교육과학연구원 누리집에서 신청한 후 공문을 발송하면 된다.

/광주=김남중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아름다움과 치료를 함께” 안티에이징시장 노크하는 제약사

항노화시장 2020년 38조 성장 전망
바이오 18社·제약 25社 시장 진출
치료 기술 노하우에 효과 기대감 커



동구바이오제약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셀룰롬’의 드래곤 리제너레이트 크림.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의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3200’. /동국제약

항노화(안티에이징)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메슈티컬 제품에 집중하고 있다. 50대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앞다퉈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론칭과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항노화 바람이 거세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항노화 화장품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19일 통계청이 조사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3만1376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로 차지했다. 이로 인해 ‘고령사회’ 진입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외모와 건강관리에 관심을 두는 50대 이상의 소비자가 액티브 시니어라는 신 계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항노화 시장도 고령사회 진전에 발맞춰 확대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약 20조 원(2016년 기준) 규모의 국내 항노화 시장은 연평균 13.2%씩 성장해 오는 2020년에는 약 38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 코스메슈티컬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치료목적의 화장품을 개발·유통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약 25개사 정도의 제약 기업과 약 18

곳의 바이오 기업이 코스메슈티컬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2년 320억 달러(약 35조 원)였던 세계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지난해 470억 달러(약 51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제약·바이오 ‘성공적 행보’

제약·바이오업체들이 코스메슈티컬 브랜드의 론칭도 늘고 있다.

동국제약의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는 코스메슈티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의 주원료(센텔라아시아티카)로 만든 ‘마데카 크림’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화장품 사업 매출액이 6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159억원) 4배 높은 수치다.

동구바이오제약도 지난 13일 인체 지방 유래 줄기세포 추출 기술과 천연 추출 성분이 결합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셀룰롬 론칭했다. 특히 ‘드래곤 리제너레이트 크림’ 2종(데이라인·나이트라인)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해당 제품은 3D줄기세포 배양액 리포솜 5만ppm 등을 합

코스메슈티컬이란?

코스메슈티컬은 화장품(cosmetic)과 의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이다.

유,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준다.

이 밖에도 동화약품·대웅제약·셀트리온·일동제약·종근당·휴온스 등도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며 화장품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러한 제약·바이오 업계들의 화장품산업 대거 진입은 자사가 보유한 치료제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화장품업계에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스메슈티컬 제품을 사용하는 손혜숙(54) 씨는 “치료제 개발 기술을 보유한 제약사가 화장품을 생산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동국제약 이용훈 과장은 “실제로 화장품 소비자들이 제약사에서 만드는 코스메슈티컬 제품에 기능적 효과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어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업체의 화장품 시장 진출에 대해 회의적인 한 화장품 브랜드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화장품 시장 진출은 비교적 적은 투자 비용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약업계 관계자는 “코스메슈티컬 제품과 의약품은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생산비를 비교해서 투자의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마사회, 푸드트럭으로 탈북민 지원 앞장 한국마사회가 푸드트럭을 통해 탈북민 돕기에 나섰다. 마사회는 과천에 있는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탈북민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개업식을 갖고 렛츠런파크에서 일정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사회는 지난 2015년 9월 통일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대상자 선정 및 창업교육 등을 담당하고 마사회 렛츠런재단은 차량 구매 및 푸드트럭 개조, 영업장소를 제공키로 했다. 현재 마사회 렛츠런재단이 지원·운영하고 있는 탈북민 푸드트럭은 총 7대다. (왼쪽 세번째부터)통일부 김병대 인도협력국장, 탈북민 이상철씨·최순윌씨, 마사회 김낙순 회장, 렛츠런재단 김학신 사무총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정기 주총 개최… 윤성태 대표이사 재선임

휴온스그룹 원안대로 배당 결정

휴온스그룹의 코스닥 상장사인 휴온스(제2기), 휴메딕스(제15기)는 지난 16일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 내 위치한 제천공장에서 회사 관계자 및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각 사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휴온스(제2기)는 재무상태 및 배당(현금배당 1주당 배당금 500원, 주식배당 1주당 0.05주)에 대해 승인을 받아 원안대로 결정했으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윤성태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휴온스는 재무상태 및 배당(현금배당 1주당 배당금 600원, 주식배당 1주당 0.1주)에 대해 승인을 받아 원안대로 결정했고, 사내이사로 휴온스 전구섭 제천공장장을 신규 선임했다.

휴메딕스는 재무상태 및 배당(현금배

당 1주당 배당금 600원, 주식배당 1주당 0.05주)에 대해 승인을 받아 원안대로 결정했고, 사내이사로 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3사 모두, 이사 및 감사보수 한도액 책정에 대한 의안을 승인 받아 결정했다.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지난 2016년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지주사 전환을 단행한 이후, 우리 휴온스그룹은 2017년에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와 경영 안정, 경영 효율 극대화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했다”며 “그 결과, 휴온스를 주축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안정화된 경영체제를 바탕으로 휴톡스, 나노복합첨단제, 이너셋 하니부쉬, 엘라비에 코스메틱 등 휴온스그룹의 차별화된 ‘블록버스터’ 육성에 집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CJ프레시웨이-대릉 병원 환자식 위한 ‘배선카’ 시장 진출 맞손

CJ프레시웨이가 주방설비 전문기업인 대릉과 손잡고 병원 환자식 제공을 위한 배선카 시장에 진출한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6일 대릉과 병원 배선카 개발, 생산 및 브랜드 출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프레시웨이는 대릉에서 개발, 생산한 배선카에 대한 영업 및 브랜드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CJ프레시웨이는 앞으로 해당 배선카에 대한 브랜드 정교화를 거쳐 ‘헬씨누리 스마트 카트’ 브랜드로 출시, 판매할 예정이다.

대형 종합병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온·냉식 배선카는 환자식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환자식은 일반적인 급식과는 달리 식판에 일일이 배분하는 작업을 거쳐 각 병실로 배식



지난 16일 진행된 CJ프레시웨이와 대릉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CJ프레시웨이 박순호 푸드서비스 본부장(왼쪽)과 대릉 유연욱 부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을 하기 때문에 조리 완료부터 최종 환자식이 제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미생물 증식될 가능성이 발생하는 데 온·

냉식 배선카를 사용하면 조리 직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환자식 안전성이 담보되는 것은 물론 식사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될 ‘헬씨누리 스마트 카트’는 환자식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예열·냉을 통해 온도를 유지하던 기존 온·냉 배선카와는 달리 자체 배터리를 이용해 이동 중에도 보온·냉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고장 유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능도 추가했다.

또 지정된 배식자 외에는 배식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모바일 및 스마트카드 보안시스템을 탑재했으며 물세척, 멸균세척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보다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코웨이, ‘세계 물의 날’ 맞아 광화문 행사

코웨이가 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19일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 대표 물 기업으로서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전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코웨이는 대형 코웨이 정수기와 대형 시루(CIROO) 필터를 만들어 전시했으며, 코웨이의 워터 소울리에 연구자들이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의미를 더했다. 코웨이 코디와 모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시네츄라시럽, 황사 관련 폐염증 효과”

안국약품 주성분 연구 논문 발표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 주성분이 황사 관련 폐염증에 유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안국약품은 자체개발한 진해거담제 시네츄라시럽의 주성분인 아이비엽과 황련의 복합 추출물이 황사로 인한 폐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횟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경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호흡기관에서 걸러지지 않는 황사는 사람의 폐 속으로 직접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호흡기 건강에 적신호 켜진 환경에서 중앙의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신

종욱 교수 및 중앙대 약대 이지운 교수팀은 알레르기질환 병태 모델에서 황사로 유도된 폐염증 반응에 대한 아이비엽과 황련의 복합 추출물의 효능을 평가했다.

아이비엽과 황련의 복합 추출물을 투여한 군에서 황사 노출로 인해 증가된 폐염증 감소, 호산구의 폐 유입 억제, 전염증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 분비 억제 등이 확인됐다. 비교군인 텍사메타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약학회지에 최근 게재했다.

한편, 시네츄라시럽이 포함된 거담제 시장은 ‘UBIST data’ 기준 2017년 1543억 원으로, 12월이 177억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황사시즌인 4월이 155억, 3월이 147억으로 각각 높았다. /유재희 기자



지난 16일 이대여성암병원 4층 다목적실에서 개최된 이대여성암병원과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간 협약식에서 백남신 이대여성암병원장(왼쪽)과 심상돈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희의로원

이대여성암병원-대강소기업상생協 MOU

건강검진·병원홍보 등 상생 협약

이대여성암병원은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강기협은 중소, 중견기업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통해 비즈니스 연결, 아이템 발굴, 자금 지원,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으

로 성장, 발전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산업자원부에서 허가받아 설립된 협회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이대여성암병원은 협회 가입 회원과 관계자의 건강검진 할인과 예약 및 건강검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강기협은 병원 홍보와 관련 업체와의 연결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평창서 맛본 신세계푸드 맛에 반해... 급식 수주 잇따라

300억 컨디션 등 대규모 신규수주 1분기 수주량, 지난해 수주량 돌파 채식·할랄 등 420종의 메뉴 개발

신세계푸드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받은 단체급식 호평을 받던 삼아 프리미엄 사업장을 수주하며 '평창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코엑스(연간 180억원), 천안상록리조트(70억원), 강화씨사이드(60억) 등 300억원 규모의 컨세션을 비롯해 대기업 공장, 물류센터 등을 새로 맡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올해 1분기 단체급식 신규 수주량이 작년 전체 수주물량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사업장은 일반 사업장에 비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급식 단가도 프리미엄 급으로 수익성도 높다. 이 같은 신규 수주를 받던 삼아 신세계푸드는 올해 단체급식 매출액이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창 패럴림픽 선수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독일 장애인 컬링팀 선수들.

/신세계푸드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빈틈없는 위생관리와 메뉴에 대한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낸 것이 수주 증가로 이어졌다"며 "단체급식 분야에서 선두 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2년 전부터 기반의 준비를 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실제 신세계푸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2년 전인 2016년부터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메뉴와 운영을 벤치마킹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보냈다. 또한 대회기간 경기장 주변 숙박시설의 가격이 치솟을 것을 예상하고 2016년 9월 강원 양양시 관동대학교 기숙사를 미리 예약해 운영인력 500여명의 숙박비용을 10억원 이상 아꼈고 동시에 평창 올림픽 케

이팅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또한 메뉴를 준비하기 위해 대회가 시작되기 1년 전부터 선수들의 경기력을 극대화 하고 국가별 입맛을 고려한 양식, 채식, 할랄, 아시안 푸드 등 420종의 메뉴를 개발했다. 여기에 영양학적 측면을 고려해 재료가 갖고 있는 영양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조리법과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매뉴얼을 준비해 실행에 옮겼다. 특히 외국 선수들에게는 주식이라 할 수 있는 빵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평창 현지에 베이킹 센터를 갖추고 직접 빵을 구워 제공하고, 무슬림 선수들을 위해 할랄푸드 존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신세계푸드가 대회기간 동안 제공한 식사 500만식(食)은 IOC와 참가선수로 부터 극찬을 받았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대회기간 중 "역대 올림픽 중 음식과 관련해 선수들의 불만이 단 한 건도 없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신세계푸드 셰프들에게 감사의 뜻과 기념 배지를 전달했다.

또한 한국 패럴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신의현 선수는 경기 전날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먹은 '잔치국수' 때문에 금메달 잔치를 하게 됐다며 선수촌 식당을 찾아 셰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신세계푸드는 평창 올림픽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2020 도쿄 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단체급식에 대한 컨설팅 사업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평창에서 쌓은 노하우를 담은 백서 만들기에 돌입했다.

김기곤신세계푸드 FS 담당(상무)은 "그 동안 글로벌 기업의 전유물이었던 국제행사의 단체급식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뿐 아니라 한국 단체급식의 높은 수준을 알릴 수 있어 뿌듯하다"며 "올림픽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통해 국내 단체급식 시장 뿐 아니라 영양식, 건강식 등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해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스타벅스커피, 올 봄도 '체리블라썸' 프로모션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19일 오전 서울 스타벅스 프레젠테이션에서 체리블라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체리블라썸 음료 3종을 비롯해 푸드와 MD 상품 등 다양한 봄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마트 '아웃도어 대전'... 600억 규모 선포

이마트는 전국 120개 점포에서 아웃도어 대전을 열고 등산용품, 캠핑용품, 낚시용품 등 600억 규모의 아웃도어 용품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아웃도어 대전의 핵심 키워드는 '일상'과 '가성비'이다. 아웃도어 시장이 위축되는 한편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 용이하거나 가성비 높은 상품들은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가 지난해 아웃도어 매출을 분석한 결과 등산화 매출은 전년 대비 5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짐낭 판

매 역시 전년 대비 43.5% 줄었고 매트리스, 텐트그늘막도 각각 -37.5%, -22.6%의 매출신장을 보였다.

반면 등산배낭 매출은 작년 기준 2016년 대비 25.0% 늘어났다.

과거에는 전문성을 강조한 30리터 이상의 대용량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판매됐지만 2017년에는 일상생활, 여행 등에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무난한 스타일을 지닌 22리터 이하 상품들이 매출 상위 품목 1~5위를 차지하며 매출신장을 견인했다.

/김유진 기자

크리스피크림도넛 '딸기 글레이즈드' 한정 판매

크리스피 크림이 4월 15일까지 신제품 '딸기 글레이즈드'를 한정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의 '딸기 글레이즈드'는 지난해 9월 선보인 '초콜릿 오리지널 글레이즈드'의 인기에 힘입어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되는 신제품이다.

이번 '딸기 글레이즈드'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대표하는 오리지널 글레이즈드를 딸기맛으로 선보이는 제품으로, 부드럽고 달콤한 도넛에 새콤달콤한 딸기의 싱그러운 맛을 더한 도넛이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19일 오후 1시부



딸기 글레이즈드 하프도넛을 맛볼 수 있도록 무료로 증정한다.

/박인용 기자

롯데홈쇼핑 'LBL', 대만에서도 통했다

한달 만에 16억원 주문액 달성 롱니트·롱코트 등 폭발적 인기

롯데홈쇼핑 최초의 패션 자체 브랜드 'LBL(Life Better Life)'이 해외에서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롯데홈쇼핑은 대만 '모모홈쇼핑'을 통해 첫선을 보인 'LBL'이 한달 만에 1만3000세트를 판매 16억원의 주문금액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LBL'은 롯데홈쇼핑이 2016년 론칭한 캐시미어 소재 중심의 브랜드이다. 연간 주문액 1000억 원으로 홈쇼핑에서 가장 성공한 패션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부터 'LBL'의 2017년 FW 상품 총 8종을 대만 모모홈쇼핑을 통해 선보였다. '캐시미어 홀가먼트 롱니트'는 40분 동안 250세트가 팔려나가며 매진과 동시에 주문금액 4000만원을 기록했다.

시간당 평균 2000~3000만원의 매출(주문금액 기준)을 달성할 경우 소위 '대박'으로 평가되는 현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초대박' 실적이라고 롯데홈쇼핑측은 설명했다.

대만 현지에서 판매중인 LBL은 현재까지 9회 방송에 주문금액 3억 원을 기록, 수출량의 90% 이상을 소진한 상



대만 모모홈쇼핑 LBL 방송 화면 캡처.

/롯데홈쇼핑

대다.

가장 인기를 끌었던 상품은 '페루산 알파카 롱코트'다. 알파카 소재로 뛰어난 보온성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국내에서도 매진이 이어졌던 제품이다. 지난해 12월 첫 방송에서 190세트가 판매되며 매진을 기록했고 당초 목표보다 3배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 현재까지 총 6회 방송을 통해 490세트가 팔려나갔다.

롯데홈쇼핑은 대만 TV홈쇼핑 이용 고객 중 4~50대 여성이 50%에 이르고 한류 열풍으로 의류를 포함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용호롯데홈쇼핑 해외수출TFT 팀

장은 "홈쇼핑에서 가장 성공한 패션 브랜드로 평가 받고 있는 'LBL'의 가치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 받아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롯데홈쇼핑의 단독 패션 브랜드들을 해외에 소개해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2005년 1월 모모홈쇼핑에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로 대만에 진출했다. 모모홈쇼핑은 설립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2008년 이후 10년째 대만 내 TV홈쇼핑 1위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에는 대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며 기업가치가 상승했으며 2016년에는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ujim6326@

G마켓, 팬코와 맞손... 브랜드 '모카섬' 첫 선

품질 좋은 옷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 베이직·스페셜 등 3가지 라인 분류

G마켓은 의류수출기업인 '팬코'와 손잡고 데일리 베이직웨어 브랜드 '모카섬'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모카섬'은 천연 코튼의 원료인 '목화솜'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품질 좋은 옷을 거품을 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자기확실했다. 전체적으로 유행을 타지 않

는 베이직웨어 콘셉트에 맞추면서도 재질, 활동성 등 제품의 특징을 나눠 총 3가지 라인으로 분류했다.

베이직 라인은 스트라이프 티셔츠, 맨투맨, 후드티셔츠, 스웨트팬츠 등 유행을 타지 않는 스테디셀러 제품들로 구성된다. 전 상품 무료 배송 서비스는 물론 가격도 6900원부터 1만5900원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 원료로 만든 '스페셜 라인'은 부드러운 실크 촉감과 보



G마켓이 베이직웨어 브랜드 '모카섬'을 론칭했다.

/이베이코리아

온 기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운동할 때나 활동적인 일상복으로도 착용하기 좋은 '에슬레저 라인'도 마련됐다.

/김유진 기자

CJ나눔재단,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꿈 키운다

420명 대상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

CJ나눔재단은 6월 8일까지 전국 공부방 초·중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CJ도너스캠프의 대표적인 꿈키움 프로그램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를 진행한다. 19일 밝혔다.

CJ도너스캠프가 지난 2013년 시작한 '창의학교'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잠재된 창의력을 개발하고, 꿈과 인성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CJ그룹의 문화·식품사업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직업과 문화를 경험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 심도있게 생각하고 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올해는 음악·영화·디자인 등 3개 부문으로 창의학교 상반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해당 분야의 전공자들로 구성된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35개 공부방을 찾아 매주 2.5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음악부문은 창작곡 만들기과 공연 기획을 통해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표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 스테이지 음악부문.

/CJ그룹

현하고 ▲영화부문은 시나리오 창작부터 연출, 연기, 촬영 등을 모두 직접 하며 영화를 제작하고 ▲디자인부문은 집과 마을을 디자인하고 이를 연결해 도시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경제, 사회적 공동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2주간의 교육이 끝난 뒤에는 참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를 선보이는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 스테이지'로 상반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ooul.co.kr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첫번째 줄 왼쪽 다섯번째)이 구태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사진 첫번째 줄 왼쪽 여섯번째),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사진 첫번째 줄 왼쪽 일곱번째) 및 '1Q Agile Lab 6기' 참여 스타트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KEB하나은행은 19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국내 스타트업 13곳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Q 애질 랩(Agile Lab) 6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1Q Agile Lab'은 KEB하나은행이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스타트업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디지털 혁신을 일으키는 실제 사업모델로 구현되도록 하나금융그룹 내 관계사와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1Q Agile Lab'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스타트업과 동반성장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SKT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에 '어느 해녀의 그리움'

한국광고주협회는 '제26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TV 부문 대상에 SK텔레콤의 광고 '어느 해녀의 그리움'(SM C&C 제작)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광고주협회는 "더는 물질을 할 수 없는 해녀 할머니에게 5G 이동통신 기술을 통해 바닷속 추억을 선물하는 내용의 광고가 진한 감

동을 준 한 편의 영화 같았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부문 대상은 한화이글스의 '세상에 없던 말'(한컴 제작)이 차지했다.

이 광고는 야구를 즐기지 못하는 농인(聾人) 야구선수들이 수어(手語) 전문가와 합심해 야구 수어를 열정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담아 감동을 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올해 행사에서는 '딸의 인사'(동아제약 박카스), 'I·SE OUL·U와 함께하는 수소 전기 하우스'(현대자동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은 1998년 만들어졌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광고를 대상으로 온라인 추천, 소비자 심사단 100명의 현장심사, 전문심사단 최종심사 등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의 광고 '어느 해녀의 그리움'

/SK텔레콤

신점[神占] 운세 3월 20일 (음 2월 4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60년생 즐거움이 귀하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72년생 좋은 벗이 집에 가득하니 웃음꽃이 만발 합니다. 84년생 집안이 화락하고 자손에게 경사가 있겠습니다. 96년생 불의의 사고를 조심 하세요.

소 61년생 사랑싸움에는 이해와 양보가 답 입니다. 73년생 구설수만 조심하면 관참은 하루 입니다. 85년생 명예와 인기가 동시에 오를 것 입니다. 97년생 입신양명하니 일마다 뜻대로 됩니다.

호랑이 50년생 사업방면에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62년생 자신이 행한 일을 스스로 처리 하세요. 74년생 고집을 너무 많이 부리면 화가 됩니다. 86년생 질투를 받아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토끼 51년생 부부간에는 주기가 불안해집니다. 63년생 이성문제가 복잡해져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75년생 부모와 자식간에 말다툼이 생깁니다. 87년생 여성은 유혹이 많은 시기입니다.

말 52년생 옛 동료가 다시 찾아와서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64년생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76년생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세요. 88년생 이미 건너 해결된 형국입니다.

뱀 53년생 기쁜 전환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65년생 과욕은 크게 손실을 불러옵니다. 77년생 발전을 약속 받는 출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89년생 어려운 시기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말 54년생 결실을 이루는 시기에 도달 할 것입니다. 66년생 불우한 이웃에게 덕을 베풀세요. 78년생 가정은 평탄하고 화목합니다. 90년생 집안에 큰 경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 55년생 즐거워 따르게 되는 운기 입니다. 67년생 뜻밖의 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79년생 모든 일에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91년생 성취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시기입니다.

원숭이 56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때입니다. 68년생 현재하고 있는 일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80년생 새로운 일을 착수하지 마세요. 92년생 운이 약해지니 미리 대비하세요.

닭 57년생 이미 이룬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69년생 귀하가 지금 추진하는 일은 잘 됩니다. 81년생 분열이 오기 쉬우니 조심하세요. 93년생 불안한 운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개 58년생 신분에 걸 맞는 소망은 성취되는 시기입니다. 70년생 거주문제로 마음고생이 따릅니다. 82년생 빠져 나야 할 구멍을 찾으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94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돼지 59년생 남과의 조화가 나쁘고 고독합니다. 71년생 인장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됩니다. 83년생 장거리 여행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울 기회가 될 것입니다. 95년생 예술적인 분야가 적성에 맞습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어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4	2		
	5			3	
7	6	8		9	
1	3		2	4	
		6			
7	9		6	8	
	5	3	4	8	
	4		9		
2		7	9		

	6				5
1	5			9	4
2	1			8	9
	3	2	4	7	
			3		
4		1	6		7
3		5	8		6
	9		7		2

스도쿠 정답

8	7	5	6	8	9	1	2	
9	8	1	7	2	4	5	6	
8	9	5	7	1	6	2	3	
6	1	2	9	3	8	7	5	
7	5	2	4	6	8	9	1	
1	6	7	8	5	9	2	4	
2	9	4	1	2	6	5	8	7
5	2	8	2	7	1	6	9	
1	2	5	4	7	8	6	9	
9	6	7	8	2	5	1	3	
4	8	9	6	1	2	5	7	
2	7	1	6	8	9	4	5	
5	4	9	7	1	2	6	8	
6	8	5	9	4	1	7	3	
7	9	6	2	8	5	2	1	
8	5	2	1	7	6	9	4	
4	1	3	5	9	7	8	6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 四季

어록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은 무한한 도전이며 칠전팔기의 인생역정과도 다르지 않다. 인생은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 했듯이 말이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우주의 기운에서 응원을 보내게 된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여러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였던 선수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선수가 있었다. 모든 경기를 보게 된 것은 아니었는데 마침 지켜보게 된 스케이트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딴 고다리아라는 일본 선수였다. 선수로서 적은 나이가 아니었던 그녀는 전문 직업 스포츠인도 아니었고 그저 스케이트가 좋아서 타다보니 재능 또한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다. 그래서 사비를 털어 네델란드로 유학을 가서는 마구간을 개조한 건물에서 숙식하며 연습을 했는데 한 때, 대학 졸업 후 잠시 근무했던 병원의 이사장은 그녀의 의지와 재능을 믿어 한 때 자신의 병원 직원이었다 그녀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였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훌륭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만고의 섭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는 어려서부터 훈련되어 오지 않은 그녀의 시도를 무모하게 보며 뒤에서 비웃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4년 뒤,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녀의 금메달 수확 후 소감도 소박했지만 자신의 경기 후, 응원 나온 일본인 관중들에게 다른 선수의 경기가 남아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모습으로서 입에 손을 올리며 '시! 하는 당부를 보며 그녀의 평소 배려 깊은 마음씀씀이를 보는듯했다. 해보지도 않고서 현실적 어려움과 장애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발전할 수 없다. 언젠가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불굴의 정주영 회장의 일화가 떠오른다. 평소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주저하는 회사 간부들을 질책할 때 주로 썼던 말로서 "이봐, 해봐?" 라는 이 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주문과도 같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마음부터 내는 부정적 사고는 바로 실패로 가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건강한 한, 나한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이 유명한 어록은 스스로에게 주는 자기 긍정의 무한한 힘이며 원동력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못할것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아우성을 치는 우리 자신들을 경책해준다. 우리는 진정 해보거나 했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가맹본사 갑질에 따른 불이익



이상현의 칼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부당함과 불이익 개선에 많은 힘을 쓰고 있다. 또한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기관이다. 최근 일부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들여다보면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개정 사항들이 아주 자세하게 반영되어 있다. 물론 프랜차이즈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구입요구 품목의 차액가맹금 공개' 등의 조항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창업자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주를 이룬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불공정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서는 가맹본부가 스스로 불공정행위의 법 위반을 예방하여 좀 더 성숙한 프랜차이즈 산업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그 취지인 듯하다.

창업자가 선택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라는 사항은 많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가맹점의 수익상황 관련 정보도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되었는데, 매출액, 매출이익 등을 비롯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지출하게 될 비용까지 현실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매출 근거 자료에서 특정 자료만 선별하여 반영하는 경우 즉 연평균 매출액이 아닌 성수기 매출액만을 반영하여 제공하는지, 또는 가맹점 개점 직후 소위 오픈빨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상승이 예상매출액으로 제공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상권 분석 정보도 실제 사항과 다를 경우, 예를 들어 오픈 예정 점포 근처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 입주할 것을 예상하여 유동인구에 대한 부분이 과장되었는지의 여부도 매의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맹사업을 시작

했다고 하더라도, 가맹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금지 조항이 추가되어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에 대한 본사의 일방적 변경은 못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각종 분쟁조정, 본사의 위반 신고 등에 따른 보복조치도 금지 하도록 법제화되었음을 참고하자.

공정위는 프랜차이즈본사와 예비가맹점주 및 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공정위의 업무라고 생각하며, 주후 개정안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반영되어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창업은 전쟁이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해서는 지피지기를 먼저 생각해서 먼저 나를 알고, 그 다음 내가 선택하는 가맹본부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본사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항상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 철저히 파악하여 접근하는 창업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현대글로비스 '2018 안전공감 마라톤' 개최

내달 22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서

현대글로비스가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 안전공감 마라톤 대회'를 4월 22일 개최한다.

안전공감마라톤은현대글로비스가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추진하는 '안전공감 캠페인'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현대글로비스와 한국생활안전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도로교통공단이 후원한다.

대회는 다음달 22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다. 코스는 여의도 일대를 달리는 5km, 10km 두 개로 운영된다. 각 코스별 참가비는 1만원이고 안전



사고 예방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참가자 전원에게 안전운전 용품 세트, 기능성 티셔츠, 완주 메달 등 기념품을 제공한다. 마라톤 행사 사회는 방송인 조우종이 맡고 대회 후에는 가수 홍진영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마라톤 참가 접수는 안전공감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5000명까지 받는다. 신청부터 결제까지 모바일 기기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정보 보안을 위해 참여 신청 조회 및 기록 확인 시 비밀번호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양성운 기자 ysw@



SC제일은행, 국제 아마추어 풋살대회 개최

SC제일은행은 지난 17일 인천 송도LNG종합 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국제 아마추어 풋살 대회인 'SC트로피컵 로드 투 안필드(Road to Anfield) 2018' 한국 예선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SC트로피컵은 SC제일은행의 모그룹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이 개최하는 국제 아마추어 풋살 대회로 올해로 6회째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8개국에서 국가별 예선이 열리며, 각 국의 우승팀은 오는 5월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구장에서 열리는 SC트로피컵 2018 본선에 출전하게 된다.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은 지난 17일 인천 송도LNG종합 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국제 아마추어 풋살 대회인 'SC트로피컵 로드 투 안필드(Road to Anfield) 2018' 한국 예선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SC트로피컵은 SC제일은행의 모그룹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이 개최하는 국제 아마추어 풋살 대회로 올해로 6회째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8개국에서 국가별 예선이 열리며, 각 국의 우승팀은 오는 5월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구장에서 열리는 SC트로피컵 2018 본선에 출전하게 된다. /SC제일은행

日 AV배우가 '케이팝' 걸그룹 데뷔라니



기자수첩 김민서 (유통&라이프부)

현해탄 건너 AV 배우, 일명 '야동 배우'가 온다. 케이팝(K-POP)이 좋아 무려 자비를 털어 한국 땅에서 걸그룹으로 데뷔한다니, 그야말로 대단한 한국 사랑이 아닐 수 없다.

그룹명은 '허니팝콘'. 소속사쿤크리에이트 측이 내놓은 공식 자료에 따르면 허니팝콘은 일본 유명 걸그룹 SKE48 출신 미카미 유야를 비롯해 사쿠라 모코, 마츠다 미코로 구성된 그룹이다.

일본에서 걸그룹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한국에서 데뷔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나만은, 그 주인공이 'AV 배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카미 유야는 SKE48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5년 AV 배우로 전향한 인물. 걸그룹이란 타이틀을 다시 붙인다 해도 현역 AV 배우였다는 사실은 변함 없다.

일각에서는 허니팝콘의 행보가 K-POP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의견은 물론, 타 걸그룹을 소비하는 시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쏟아진다.

이렇다보니 이미 허니팝콘의 데뷔를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난 14일로 예정돼 있던 쇼케이스는 다수의 항의 끝에 취소됐고, 이들의 데뷔를 막기 위한 청와대 청원도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허니팝콘은 오는 21일 쇼케이스를 강행한다. '비비디바비디부'를 발매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어쩌면 이들에게 너무나 배타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 '친한(親韓)' 성향을 가진 미카미 유야가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편견 어린 시선으로 이들에게 역경만 더하는 꼴은 아닌지 하는 의문 말이다.

그러나 의도가 순수하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만을 내놓진 않는다. 한국 아이돌 산업이 정점에 오른 데다,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각해야만 한다.

/min0812@metroseoul.co.kr

인사

- ◆ 기획재정부 ◇국정급 △민생경제정책관 황인선
- ◆ 외교부 △외전기획관 구홍석 △국제경제국장 강재권
- ◆ 관세청 ◇부이사관 승진 △비서관 이석문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박현 △부사관 심사국장 임병구
- ◆ APEC 기후센터 △기후사업본부장 유진호 △경영기획실장 윤여훈
- ◆ 해외건설협회 ◇본부장 △경영본부장 김준현 △정책본부장 강신영
- ◆ 코스콤 ◇신임 팀장 △금융영업1팀 김용현
- ◆ 한국공항공사 ◇임원 임명 △부사장 김영문
- ◆ 한국거래소 ◇신임 △경영지원본부장 정보홍

순욱 △경영지원본부장 정보홍 △경영지원본부장 정보홍 △채남기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권오현 △코스닥시장본부장 김성태 △김영춘 △시정감시본부장 김현철

◆ SK증권 ◇임원 △법인영업본부장 이사 김인원 △채권영업본부장 이사 오민영 △보임변경 △IB부문장 전무 박태형 △WWM부문장 상무 김정열 △채권운용본부장 상무 이상우 △부사장 전보 △경기PIB센터장 이상일 △서인천지점장 신수영 △PF팀장 전용우 △WWM추진팀장 구자원 △결재업무팀장 이춘출 △금융소비자보호팀장 박동간 △법무팀장 이정형 △업무개발팀장 송귀자 △준법감시팀장 정승구 △채권프랍운용팀장 박용진 △신인입 △구서지점장 임창원 △창원지점장 강상수 △기업금융2팀장 임국현 △감사팀장 조해용 △재무팀장 고석희 △정보전략팀장 김기원 △채권영업팀장 전동한

▲김낙중씨 별세, 김호정(전국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은주(서울 역삼아르노비티호텔 총괄매니저)·은숙(임실군청 홍보팀장)씨 부친상, 문상도(하나은행 ICT그룹 IT기획팀장)·유승훈(전라일보 사회부 차장)씨 장인상 = 19일 낮 12시,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21일 오전 11시. 031-787-1500

▲윤영원(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부대표)씨 장인상 = 18일, MH연세병원장례식장, 발인 20일. 055-223-1000

▲박세호(강원지방경찰청 부장)씨 장모상 = 18일 오후 6시, 청주병원 발인 20일 오전. 033-248-0221

▲김용(개인사업)·진(한국투자증권 본부장)·웅대(개인사업)씨 부친상 = 19일 경남 진주 중앙병원, 발인 21일. 055-745-8000

▲김대유(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비서관)·호유(전 신한은행 지점장)·만유(건설업)씨 모친상, 김시만(전 대검찰청)·윤종수(전 현대건설)·김정우(전 태백시)씨 장모상, 김성민(김연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씨 조모상 = 19일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발인 21일 오전 10시. 033-532-4440

▲김혁연(향우신문 대표)씨 별세 = 19일 오전 5시 30분 국립의료원, 발인 21일. 02-2262-4800

부음

▲송준호씨 별세, 송영진(한국이콜랩 부사장)·영민(CJ올리브네트웍스 부장)씨부친상, 강석희(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사무국 부장)씨 장인상 = 18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일 오전 10시. 02-2072-2020



아시아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따뜻한 아침밥 선물

아시아나항공이 12년째 서울 시내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9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서울시 저소득층 가정 학생 조식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갖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 아침밥 지원을 위한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아시아나항공이 12년째 서울 시내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9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서울시 저소득층 가정 학생 조식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갖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 아침밥 지원을 위한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아시아나항공



동국제약, 이웃에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활동

동국제약은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이 '제10회 잇몸의 날' 주관을 맞아 지난 15일 한양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치주학회, 한양여자대학교, 동국제약이 함께하는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는 평소 치과 방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치과검진, 스케일링 같은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재능기부활동이다.

동국제약은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이 '제10회 잇몸의 날' 주관을 맞아 지난 15일 한양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치주학회, 한양여자대학교, 동국제약이 함께하는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는 평소 치과 방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치과검진, 스케일링 같은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재능기부활동이다. /동국제약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이장규
 인 쇄 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3
 2002년 5월 31일 정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0206
 제3918호 / 00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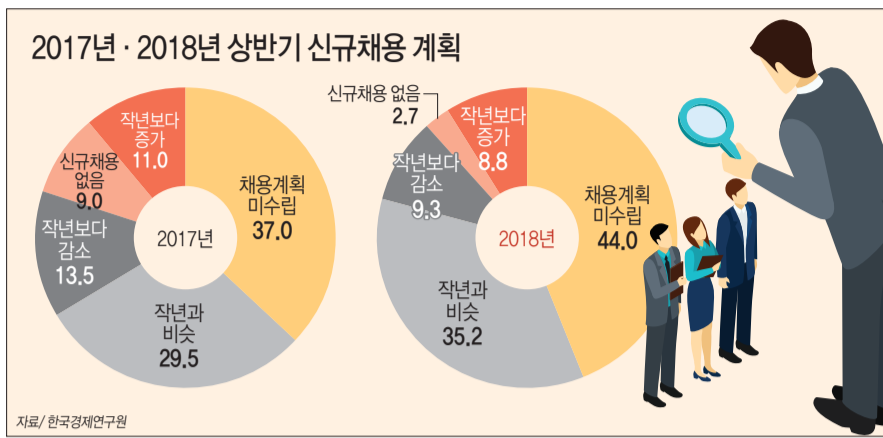
1분기 지나도록... 대기업 10곳 중 4곳 상반기 채용 '미정'

미국발 금리인상·최저임금 상승 등 '회사 내부 상황 어려워' 25.9% 꼽아

올해 취업 시장에 한파가 불어 닥쳤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기 후퇴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기업 10곳 중 4곳이 상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용 정책이 인위적인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와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82개 사 중 80개 사 44.0%가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7%)보다 7.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12.0%는 작년보다 채용규모를 줄이거나 한명도 뽑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신규채용을 작년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8.8%(16개사)에 그쳤다. 지난해 11.0%(22개사)보다도 2.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올해 작년 상반기보다 채용을 줄이는

곳은 9.3%(17개사), 신규채용이 없는 곳은 2.7%(5개사)이었다.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회사 내부 상황 어려움'(25.9%), '국내외 경제 및 업종 상황 악화'(20.0%), '통상임금,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14.2%) 등을 꼽았다. 결국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상승에 대

한 부담과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등 외부적 경기 상황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 또는 국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기업들의 63.2%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고용증가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강화'(47.8%),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42.9%), '법정 최대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 유도'(20.9%),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확대'(12.1%) 순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결국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도 이공계·남성 선호는 여전했다.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인

원 중 이공계 선발 비중은 평균 55.3%, 여성 비중은 평균 28.6%로 조사돼 올해 상반기 취업시장에서도 '이공계·남성' 선호가 여전한 나타났다.

대졸 신규채용시 블라인드 인터뷰 또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에 대해 34.6%(63개사)는 이미 도입했다고 답했고, 18.1%(33개사)는 향후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한경연이 지나해 하반기에 실시한 동 조사에서는 응답기업 24.9%가 블라인드 채용을 이미 도입했다고 답해 9.7%포인트가 증가했다.

블라인드 채용 기대효과에 대해 기업들은 '자기소개서, 면접답변에 집중'(71.4%), '공평한 취업기회를 제공'(68.7%), '스펙위주 채용관행에서 직무·능력중심의 채용방식으로 변화'(52.7%) 등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롯데, 상반기 신입·인턴사원 1150명 채용

신입 공채 800명·하계 인턴 350명
오늘부터 40개사 신입공채 모집 시작



롯데그룹은 20일부터 2018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및 하계 인턴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회사는 식품·관광·서비스, 유통, 석유화학, 건설·제조, 금융 분야 등 40개 사다. 채용 인원은 신입 공채 800명과 하계 인턴 350명 등 1150명 규모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신입 공채와 비슷한 규모다.

이번 신입 공채는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하계 인턴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롯데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접수를 받는다. 신입공채 전형 절차는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엘탭(L-TAB; 조직·직무적합도 검사) → 면접전형> 순이며, 6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는 이번 채용부터 백화점, 마트, 정보통신 등 일부 계열사에 AI 시스템을 도입해 서류전형에 활용한다. AI는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지원자가 조직과 직무에 어울리는 우수 인재인지를 판별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세밀히 검토할 수 있는 만큼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은 동시에, 우수인재 발굴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는 AI 시스템이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존 서류전형의 평가방법을 병행하고, AI의 심사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인의 자기소개서를 표절할 경우 불이익을 제공할 방침이다.

엘탭은 지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마찬가지로 별도 전형으로 분리해, 4월 28일에 그룹 통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엘탭 이후 진행되는 면접전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에 모든 면접을 끝내는 '원스탑 면접' 기조를 유지해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엘탭과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는 전형결과 피드백을 이메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인홍 기자 parkiu7854@

100대 대기업, 직원 1인 평균급여 5400만원

SK이노, 평균 9300만원으로 1위
기아차, 직원 근속년수 제일 길어



100대 대기업의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급여는 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SK이노베이션이 평균 93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근속년수가 가장 긴 기업은 기아차로 평균 20.3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잡코리아가 시가총액 순위 상위 100대 대기업 중 최근 분기보고서(2017년 9월 기준)를 공개한 81개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원 1인 평균 급여는 5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SK이노베이션으로 직원 평균 급여액이 9300만원에 달했다. 이어 메리츠증권(9261만원), S-OIL(9031만원), SK텔레콤(8400만원), NH투자증권(8100만원), 네이버(7760만원), 미래에셋대우(7400만원), 삼성증권(7289만원), 한화케미칼(7007만원), 우리은행(7000만원)이 상위 10위에 들었다.

성별로 남성 직원의 1인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기업은 메리츠증권(1억854만원)이었고, 이어 SK이노베이션(1억200만원), NH투자증권(9500만원), S-OIL 순으로 높았다. 여직원 급여가 가장 높은 기업은 네이버(6758만원)였고, 이어 SK이노베이션(6500만원), SK텔레콤(63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직원 평균 근속년수가 가장 긴 기업은 기아차로 20.3년이었다. 이어 KT(20.2년) 포스코(19.7년) 현대자동차

(18.9년) 순으로 근속년수가 길었다. 특히 남직원 근속년수가 긴 기업은 KT(20.6년), 기아차(20.4년), 포스코(20.2년) 순이었고, 여직원 근속년수가 긴 기업은 KT&G(19.3년) 한화생명(18.1년), KT(17.8년) 순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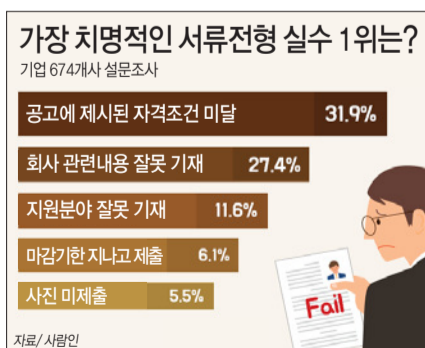
남성 직원 비율이 높은 대기업으로는 현대제철(남직원 비율 97.3%), 기아차(97.1%), 한온시스템(97.0%), 대우조선해양(96.6%), 고려아연(96.4%) 순이었고, 반대로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은 롯데쇼핑(여직원 비율 68.7%), 아모레퍼시픽(68.6%), 신세계(67.8%), 코웨이(65.5%), 이마트(65.1%)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원 수는 삼성전자가 9만983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현대자동차(6만8194명), LG전자(3만7700명), 기아차(3만4752명), LG디스플레이(3만3242명), 이마트(2만7582명), 롯데쇼핑(2만6014명), KT(2만3632명), SK하이닉스(2만3278명), 한국전력(2만1392명)이 상위 10개사로 집계됐다.

/한용수 기자 hys@

탈락 부르는 서류... 치명적 실수 '자격 미달'

세부조건 확인않는 지원 구직자 다



삼성, LG, SK 등 주요 대기업 상반기 공채 첫 관문인 서류전형이 진행되고 있다. 서류전형에서 구직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일까.

19일 사람이 기업 674개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격조건 미달'이 31.9%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전공이나 자격증 등 세부 자격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하는 구직자들이 많다는 걸 보여준다. 이어 구직자들의 서류 실수는 '기업명 및 회사 관련 내용 잘못 기재'(27.4%), '지원분야잘못 기재'(11.6%), '마감기한 지나고 제출'(6.1%), '사진 미제출'(5.5%), '제출서류 미첨부'(4.3%), '이력서 중 일부 항목 누락'(4.3%), '지정된 제출양식 위반'(4.2%) 등이 있었다.

이 같은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실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응답기업의 85.8%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한용수 기자

위메프, 신입MD 30명 추가 공채

올해에만 신입MD 100명 채용 목표



위메프가 2분기 30명에 달하는 신입 MD 충원에 나선다.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선도할 핵심 인력으로 MD(상품기획자)를 꾸준히 발굴·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위메프는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상품 MD 직군 신입 공개 채용을 이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신입 및 관련경력 2년 이하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하다.

서류접수는 오는 4월 5일까지 위메프 채용공고 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약 2주간 1~2차 면접 전형을 거쳐 상품 MD 직군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의 입사 예정일은 5월 8일이다.며 3개월간 직무 교육 및 실무 멘토링 과정을 거쳐 각 부서로 배치될 예정이다.

위메프는 이커머스 기업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신규 인재 발굴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만 신입 MD 100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1분기에는 목표의 절반에 달하는 인원을 채용했다. 위메프는 예정된 2분기 공채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신입 MD 채

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지난해 공채로 입사한 신입 MD들이 짧은 시간에 높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 "연내 100명 이상의 신입 MD 공개 채용을 목표로 지속적인 인재 발굴과 육성을 진행, 임직원과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청년 일자리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프는 위메프와 MD 직군에 관심이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는 24일과 30일 삼성동 위메프 본사 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9일까지 위메프 채용설명회 달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하용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위메프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관심이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취업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선배 MD들이 들려주는 위메프와 MD 직무 이야기를 통해 취업준비생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m6326@

G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가성비 높은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70개국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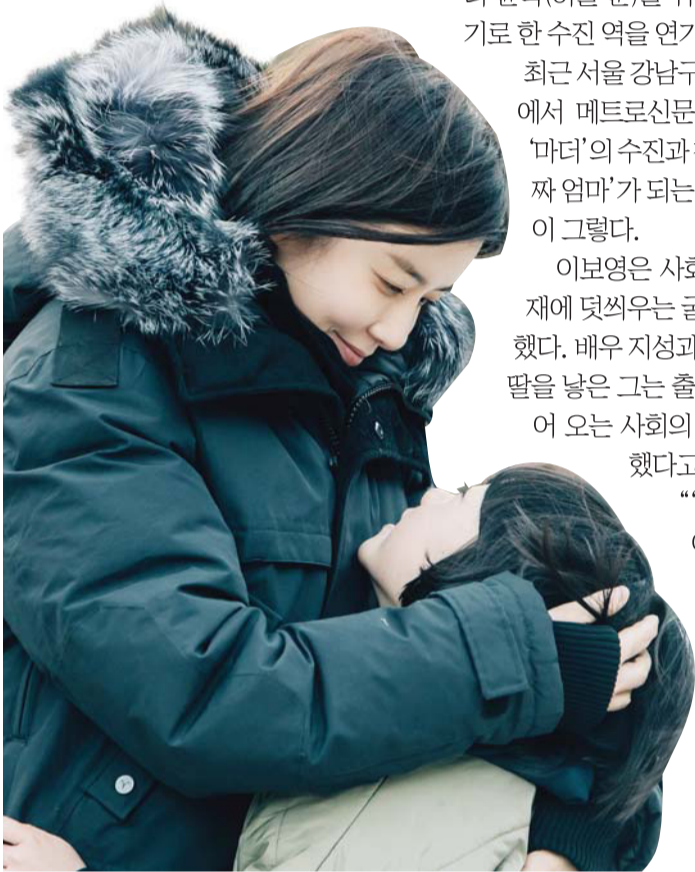


GMT
1547.1135

‘진짜 엄마’ 이보영이 세상의 엄마들에 전하는 이야기

★스타인터뷰 드라마 ‘마더’ 이보영

아동학대 사건 보고 출연 결심
버림받은 소녀위한 ‘진짜엄마’ 역
‘모성애는 타고나는 것’은 편견
엄마-아이 관계는 ‘사람대 사람’
제1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공식 경쟁 부문에 ‘마더’ 선정



엄마가 되어 돌아온 배우 이보영. 그가 드라마 ‘마더’의 인터뷰 도중 눈물을 터뜨렸다. 아쉬움과 고마움이 묻어난 눈물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아이를 낳고 얼마되지 않았을 때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통곡했어요. 원영이 사건 때는 거의 기절했을 정도였죠. 그래서 ‘마더’를 통해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보영은 지난 15일 호평 끝에 막을 내린 tvN 수목드라마 ‘마더’(극본 정서경/연출 김철규)에서 엄마에게 버림받은 소녀 윤복(허율 분)을 위해 진짜 엄마가 되기로 한 수진 역을 연기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메트로신문과 만난 이보영은 ‘마더’의 수진과 참담아있었다. ‘진짜 엄마’가 되는 긴 여정을 거친 점이 그렇다.

이보영은 사회가 ‘엄마’라는 존재에 덧씌우는 굴레에 대해 이야기했다. 배우 지성과 결혼한 뒤 2015년 딸을 낳은 그는 출산 후 자신을 옥죄어 오는 사회의 시선에 때로 울컥했다고 밝혔다.

“왜 나한테만 모성애를 강요하지?”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을 때면 ‘대단하다’고 치켜세워주지만, 제가 안고 있을 땐 당연한 일이 되더라고요. 엄



tvN 드라마 ‘마더’의 한 장면. 배우 이보영(오른쪽)과 허율.



/tvN

마가 되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아야만 하는 건데, 사회는 ‘모성애’에 대해 너무나 강압적이예요.”

이보영은 처음 딸 아이를 낳았을 때 ‘예쁘지 않았다’고 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처럼 내 아이를 낳으면 눈에서 하트가 나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던 그는 “아이와 관계가 쌓이면서 점점 예뻐졌다”고 말했다.

이보영은 ‘모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란 사회의 편견을 한겨울 벗겨내고자 했다. 모성애가 없음을 스스로를 책망하고, 죄책감을 갖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자 했다.

이보영 역시 그런 아픔을 지나왔다. 모유수유를 끊을 땐 아이에게 죄책감마저 느껴졌다고. 이보영은 이 모든 순간을 지나온 뒤, 진짜 엄마가 됐다. 지금은 아이가 너무 예뻐 참을 수 없을 정도라고. 그만의 ‘모성애’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사람 대 사람’이길 바라요. 아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듯, 아이도 나에게 ‘엄마’라는 걸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

편과 자주 얘기해요. 아이를 떠먹여 주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떠먹을 수 있는 존재로 키우고요. 아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더’는 ‘진짜 엄마’ 이보영이 세상의 수많은 엄마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이자, 하나뿐인 딸 아이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발판과도 같다.

제작발표회 때도 눈물을 보였던 그는 “아이를 낳은 뒤 유난히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소식이 많았다. 그때 매일 울었다. 활자화로 본 사건들이 머리 속에 영상으로 떠오르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며 “그때 ‘마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답씩 하겠다고 했는데 만감이 교차했다. 제작발표회 때 그 마음 때문에 슬프고 겁도 났다. 이렇게 좋은 작품을 잘못 건드릴까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다른 방향으로 갈까봐 무서웠다”며 “그럼에도 ‘해야한다’는 생각이었다.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무겁고 아픈 소재를 다룬 작품인 만큼 ‘마더’를 보기 어려워하는 시청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우려 섞인 시선은 회를 거듭

할 수록 사라졌고, 이는 곧 호평으로 뒤바뀌었다.

이보영은 “초반엔 보기 힘들어서 못 보겠다는 주변 반응도 있었다. 마음이 아파서 그렇다더라”면서 “지금은 ‘마더’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덕분에 힘이 많이 났다”고 말했다.

2015년 엄마가 된 이보영은 2018년 ‘마더’를 통해 다시 한 번 ‘엄마’가 됐다. 세상의 수많은 엄마들에게 ‘마더’라는 메시지를 던지기까지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성공했다.

이렇듯 많은 생각을 담아낸 작품이었기에 ‘마더’의 끝이 아쉬울 따름이다. 이보영은 “마지막 촬영이 끝나고 윤복이랑 둘이서 엄청 울었다.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다. 내일도 촬영장에 나가야 할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 ‘마더’는 칸으로 향한다. ‘마더’는 최근 제1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공식 경쟁 부문에 선정됐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모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길 바란다”던 그의 말처럼 ‘마더’의 메시지가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돌아온 여제’ 박인비, LPGA투어 1년 만에 우승

19언더파 269타 기록... 통산 19승

‘골프여제’ 박인비(30·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년 만에 정상에 오르며 통산 19승째를 달성했다.

박인비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와일드파이어 골프클럽(파 72·6679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총상금 150만 달러)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 5언더파 67타를 적어냈다.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를 기록한 박인비는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 마리아 알렉스(미국), 에리아 쭈타누간(태국·이상 15언더파 273타)을 5타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22만5000달러(약 2억4000만원)다.

박인비는 지난해 3월 ‘HSBC 우먼스 챔피언스’에서 우승한 이후 1년 만에 우승을 추가하며 투어 통산 19승째를 올렸다.

지난해 8월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허리 부상을 당해 시즌을 조기 마감했던 그는 올 시즌 두 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1위

에 오르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14언더파 단독 선두로 최종라운드에 돌입한 박인비는 1번홀(파4)부터 버디를 낚으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후 11번홀(파5)까지 10개를 연속 파행진을 거듭한 박인비는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하며 선두를 위협 받는 듯했으나, 또 한 번의 몰아치기로 승기를 잡았다. 12번홀(파4)을 시작으로 15번홀(파5)까지 4홀 연속 버디를 낚으면서 2위 그룹과의 격차를 4타까지 벌렸다.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박인비는 마지막 18번홀(파4)도 안정적으로 끝내며 우

승을 확정했다.

역대 최고령 우승에 도전했던 로라 데이비스(55)는 이날 2번홀(파5) 이글을 하는 등 선두를 바짝 추격했지만 박인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인지(24·KB금융그룹)는 버디 6개를 잡아내며 데일리 베스트를 기록,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5위에 올랐다.

지난해 준우승만 5차례 했던 전인지는 올 시즌에 앞서 치렀던 두 개 대회에서 20위권 밖에 머물렀으나 ‘톱5’에 들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

/김민서 기자



티오프하는 박인비.

/AP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3월 20일

음력: 2월 4일

수도권 날씨

3~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36 | 해질 / 18:43

연천 0/8

동두천 1/10

가평 1/7

파주 0/9

서울 3/9

양평 1/9

인천 3/9

수원 3/9

용인 3/9

평택 2/10

백령도 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 잉글랜드 프로축구 무대에서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사진)의 재계약 논의가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 ▲ 한국테니스의 간판 정현(한국체대)이 세계 랭킹 23위에 오르며 아시아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 ▲ KBO가 오는 30일 경기도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리는 kt wiz와 두산 베어스의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경기 시작 시간이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7시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 ▲ KBO가 사회 소외계층의 청소년 야구선수들이 야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야구 장학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한국 동계패럴림픽 출전 사상 첫 금메달의 쾌거를 이룬 ‘노르드 철인’ 신의현(창성건설)이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바이애슬론 메달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 ▲ 로리 매길로이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1년 6개월 만에 정상에 올랐다.
- ▲ 여자컬링 대표팀이 20일 2018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예선 4차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결승전 상대인 스웨덴과 만난다.



[에듀·잡] 경제상황 악화에 대기업 10곳 중 4곳 채용계획 미정 L4



Life

[엔터테인먼트] '마더' 이보영 "엄마가 되는 것도 깨달아가는 것" L6



대학들 전형료 장사 그만!... 산정기준 깎깐해진다

수당·경비 구분해 기준 잡아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될 것

올해 대입부터 대학들이 지원자들로부터 받는 대입전형료 책정과 지출이 더 깎깐해진다. 대입전형료는 그동안 산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로 책정해 방만하게 지출돼 수험생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출 항목과 연계해 산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입학전형료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 항목은 '수당'과 '경비'로 구분해 구체화 했다.

대학들은 이에 따라 수당으로 산정해 받은 금액 내에서 실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

당은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홍보, 회의에 따른 수당 등 6가지로 표준화해 해당 사항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경비로 산정한 금액으로는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만 지출이 가능하다. 특히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때만 지출할 수 있고, 홍보비도 입학정원에 따른 지출상한비율을 추가로 5% 축소했다.

이에 따라 홍보 경비의 경우 입학정원 2500명 이상 대학의 경우 15%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입학정원 1300~2500명 사이는 25%, 1300명 이하의 경우는 35%까지 홍보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입학전형료 산출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하도록 했고, 산출시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이에 따라 투입되는 인원, 시간, 횡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대학 업무담당자에게 적극 알리고, 2019학년

대입전형료 지출의 항목과 산정방법의 변화

	현행	개정
수당	학교별 각종 수당 규정 및 지급	6개 수당으로 표준화 출제·감독·평가·준비 및 진행·홍보·회의
회의비	입학전형 관련 모든 회의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
홍보비	총 지출액 대비	
	입학정원(명)	상한비율
	1300 미만	40%
1300~2500	30%	
2500 이상	20%	
산정방법	실제 비용 단순 지출	비용 지급 시 인원, 수량, 면적, 횡수, 시간 등 증빙서류 강화 자산의 취득 및 운용성격의 지출 금지

자료/교육부

도 대입전형료 책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입전형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적

정 수준의 대입전형료 책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울-베이징, 미세먼지 해결 위한 '핫라인' 가동

고정연락관 지정해 정보 공유하기로 박원순 "실질적인 협력방안 이끌 것"

서울시와 중국 베이징시가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핫라인'을 가동한다. 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단을 만들어 대기질 개선책을 집중 연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천지닝 베이징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장에서 만나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가동된 협력기구로, 경제·문화·교육·환경분야 협력을 모색했다. 2년에 한 번씩 두 도시에서 회의를 연다. 천지닝 시장은 이번 회의를 위해 베이징시 간부급 30여 명을 이끌고 서울을 찾았다.

서울과 베이징은 이번 3차 회의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천지닝(陳吉寧) 중국 베이징시장이 19일 서울시장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연락관을 지정해두는 방식의 '미세먼지 핫라인'을 만들어 두 도시의 대기 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만들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 메커니즘 구축

을 위해 정기적으로 포럼도 개최한다. 과학연구와 기술 시범사업 협력을 도모하는 '서울-베이징 환경 연수 프로그램'도 교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두시는 오는 20일 서울시장에서 '서울-베이징 미세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실질적인 공동 대책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과 베이징의 공동 관심사이자 최우선 해결과제인 대기질 개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이끌어 내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외교적 노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미세먼지를 '호흡공동체'인 동아시아 공동체3의 과제로 보고, 중국 산둥성, 몽골 울란바토르, 중국 톈진시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동아시아 도시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50+취업진로전문관' 모집... 경험 활용해 청소년 돕는다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취업 도와 50+세대 사회참여·청년 취업 이끌 것

서울시는 시 소재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진로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덜어 줄 '50+취업진로전문관'으로 활동할 50+세대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50+취업진로전문관은 50+세대가 사회적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진로상담, 면접지도 등 실질적인 취업 지도를 지원한다.

전문관들은 취업준비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비롯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기술교육



2017년 50+ 취업진로전문관 활동 모습. /서울시

등 취업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취업정보리서치, 사회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취업처 발굴 등의 활동도 펼친다.

50+취업진로전문관 지원대상은 만50세부터 67세까지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다.

모집인원은 70명이며, 접수기간은 19~30일까지다. 서울시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50+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희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는 "50+취업진로전문관 사업은 50+세대의 사회참여와 청년들의 취업을 모두 이끌 수 있는 세대통합형 사회공헌일자리 모델"이라며 "50+세대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우리 구청 소식

◆종로구, '동네 민주주의 컨퍼런스' 참가 서울 종로구는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을 이끌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모임인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협의체'가 '동네 민주주의 컨퍼런스' 참가단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동네 민주주의 컨퍼런스'는 오는 4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마포구,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서울 마포구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3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개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집 공간을 구에 5~10년간 무상 임대해주면, 어린이집 시설 리모델링비와 교구비 등을 지원해주는 협력 사업이다.


/김현정 기자







KB X BTS

대한민국대세 모바일뱅킹

KB스타뱅킹



일상을 바꿔놓을 새로운

 <p>인증 없이 5초 만에 보내는 KB 빠른이체</p>	 <p>로그인 없이 계좌 확인 KB 계좌뷰</p>
 <p>자산관리를 게임처럼 즐겁게 KB Play Asset</p>	 <p>우대환전에 외화 배송까지 KB 외화환전</p>



※ KB스타뱅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거나 스마트상담부 (☎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물에 대한 유효기간 2019.03.19 까지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53-1호(2018.03.02)

 KB 국민은행